

고난과 역경의 가운데 서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3월19일 (토) 제 1866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우리는 성경책이 더 필요합니다!”

CT, 미 성경협회 RL. 브리그스의 우크라이나교회의 외침 보도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전쟁반대'를 외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물론 전쟁을 불사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섰다. 미국과 영국, 스위스, 브라질, 일본, 이란 등 전 세계 곳곳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반전 집회와 서명이 이어지고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쟁 반대의 목소리는 침공의 당사국인 러시아에서조차 울려 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인 지난 2월 24일부터 반전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 비정부기구 'OVD-info'에 따르면, 침공 첫날인 24일부터 사흘 동안에만 3,093명이 체포됐다. 하지만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는 반전시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쟁과 폭력은 악한 것이며 항상 엄청난 대가가 뒤따른다. 기

독교 복음은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쟁과 폭력이 아닌 화해의 길로 인도한다. 이러한 악을 직면해서 크리스천은 지정학적인 경쟁에 기반 한 것이 아닌 다른 논리로 기도한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폭력과 전쟁이 아닌 전쟁의 축소(De-escalation)와 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미국 성경협회(American Bible Society) 회장이자 대표를 역임중인 로버트 L. 브리그스(Robert L. Briggs)는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역설적으로 동유럽에서 성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말한다(The Ukrainian Church: 'We Need More Bibles'; As Eastern Europe goes to war, Scripture is in higher demand, say some). 다음은 크리스체너티가 보도한 R. L. 브리그스 회장의 이야기이다.



OC교협 심성은 회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선미니스트리와 OC지역 단체와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세요!

미주내 한인 교계단체 우크라이나 돕기 동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주내 한인 기독교계와 단체들도 기도하며 물질후원에 나서고 있다. 또 교단 별로도 현지와 연결해 직접 돕고 있다. 서부에서는 선미니스트리(SON Ministries)와 오렌지카운티교협이 공동으로 난민지원 모금활동을 시작했으며 동부에서는 뉴욕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또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출신 지방회원을 통해 현지 지원에 나섰다.

절망과 불확실성 한가운데 성경이 주는 희망 있어

최근 일요일 아침 우크라이나에서 교회를 통해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동쪽 국경의 군인들이 이동식 로켓 발사기를 소지하고 있다. 소년 본다렌코는 다리에 총을 맞았고, 소년은 다시 걸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코발스 가족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몇몇 질문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과연 다음 주에 여기 있을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침공 당일부터 키예프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바로 어제 크이우(키예프) 부근에 미사일이 연달아 떨어지면서 그 조심스러운 소리는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절망과 불확실성과 씨름하는 가운데 이번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교회는 갈등의 중심에 들어가게 됐다. 그들은 그곳에서, 강하게 단결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성경협회 회장으로서 우크라이나 성경학회 부사무장을 맡고 있는 친구이자 동료인 아나톨리 레이치네츠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차마 읽기 힘든

보고서를 공유했다. 병원 밖에서 아들을 위해 통곡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수천 명의 사람들... 그러나 아나톨리는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경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나톨리의 교회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위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편 31편을 들려줬다.

그는 사람들이 2022년 크이우의 상황에서 그 성경 구절을 듣고 종종 놀란다고 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시3:21 새번역).

전쟁이라는 미지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많은 이들은 처음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아나톨리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설교자와 사역자들이 성경책을 구입하기 위해 크이우에 있는 성경공회 매장에 모여들었다. (3면으로 계속)

선미니스트리&OC교협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 SON Ministries)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심성은 목사) 등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계 기관 및 단체가 전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실시한다.

선미니스트리는 지난 11일 남가주 기독교언론사 기자 간담회를 열고 OC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성은 목사), OC 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OC 여성목사회(회장 박정희 목사) 등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나 난민들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20만 달러를 목표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금 액수와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 단체와 언론사에 자세한 지원 내역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선 미니스트리는 우크라이나 현지와 인접국 국경에서 사역하는 서진택 선교사(하르키우), 정광섭 선교사(우즈고라도, 슬로바키아 국경), 한호진 선교사(키시나우 난민 캠프), 김현승 선교사(몰도바 국경)와 협력해 현지 난민구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9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이동진 목사



4면 푸른초장 신두현 목사



8면 말씀과 땅 박성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cbooks.com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이민생활 37년차
기독교 교육학 김종환 교수의 자녀양육 멘토링

부제: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민자의 자녀양육

김종환 교수의 주옥 같은 61편의 글이 드디어 책으로 출판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자는 유학생 시절부터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되기까지 이민자의 삶을 바닥부터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글은 이민생활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아 깊은 공감과 커다란 배움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미국문화의 현상이야기 속으로 생생하게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고 탁월한 기독교교육학자가 쓴 이 책이 널리 알려져 이민자의 자녀양육과 신앙교육이 바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앵커리지 제일 한인침례교회 **이재원 목사**, Anchorage, Alaska

부제: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민자의 자녀양육

김종환 교수의 주옥 같은 61편의 글이 드디어 책으로 출판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자는 유학생 시절부터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되기까지 이민자의 삶을 바닥부터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글은 이민생활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아 깊은 공감과 커다란 배움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미국문화의 현상이야기 속으로 생생하게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고 탁월한 기독교교육학자가 쓴 이 책이 널리 알려져 이민자의 자녀양육과 신앙교육이 바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앵커리지 제일 한인침례교회 **이재원 목사**, Anchorage, Alaska

저자 **김종환** 교수
달라스 침례대학교 신학대학 부학장, 기독교교육학 교수
Associate Dean an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Mary C. Crowley College of Christian Faith
Dallas Baptist University

Jura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비영리단체 주라 인터네셔널(JURA INTERNATIONAL)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구입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온라인 구매 : WWW.HISFINGERMALL.COM 달라스 지역 : 북나라(BookNara) 2625 Old Denton Rd #328 Carrollton, TX 75007 (972)245-2665

Hisfinger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시 8:3) ...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 8:6)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출판상담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3386@GMAIL.COM

발행인 칼럼

눈물의 회복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모든 인생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 그중에 가족의 죽음은 가장 큰 아픔이다. 어느 가정이나 죽음은 찾아온다. 극심한 슬픔도 함께 온다. 가족 상실의 고통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고통에 비견할 고통이 목회자에게도 있다. 나 사모가 죽었다. 그의 누이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예수님과 대화에서 그들의 슬픔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다. 그 대화는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오라버니를 장사지낸 마리아도 울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울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울음을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침내 예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더 큰 공감이 어디 있었는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공간의 예수님은 더 나아가 함께 울어 주셨다. 예수님은 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셨다. 그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이다. 죽은 자의 념새가 나는 자리에서 놀랍게도 감사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눈물을 넘어 감사하셨고 마침내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애처로움에 우시기도 했다. 자신이 그토록 우셨던 예수님이 인생의 눈물을 외면하실 리가 없다. 나의 아픔에 지나칠 리가 없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들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던 모니카에게 암부르스 감독이 한 말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신 말씀이 왜 우리에게겐 없겠는가. 하시리라. 전쟁의 참화 속에 쏟아지는 우크라이나와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처지의 눈물도 보고 계시리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다고 약속하셨다.

언제 눈물이 나시는가. 어떤 단어를 들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가. "저는 유대인이라 단어만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유대인을 선교하기 위해 삶을 드린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다. 교회 청빙 제안에는 흐르는 눈물이 없다고도 하셨다. 눈물의 그 선교사님은 약한 것 같지만 타협을 모르는 강한 용사이다.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행20:18-19). 그의 사명의 자리에 눈물이 있었다. 그렇다. 그 말만 들어도 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나의 사명이 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이다. 공감의 눈물, 기도의 눈물, 사명의 눈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 습기가 없는 곳에서 어떤 곡식이 자라겠는가. 눈물이 없는데 어찌 이 힘든 세상에 공감과 위로와 사명이 있겠는가.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가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11:16-17).

‘모든 것 불허!’ 그러나 인터넷 사역은 성장할 것!

CT, 중국 종교사무국 기독교뉴미디어속청 상황속 크리스천의 대처 전략/대안 소개

많은 중국 크리스천은 중국 인터넷 선교의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암울한 시기로 접어들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 국가 종교 사무국(SARA)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대책'('Measures on the Administration of Internet Religious Information Services)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가 승인한 웹사이트의 특별 허가를 받은 종교 단체에 대한 온라인 사역 외에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선교목사인 제리 안(Jerry An, Reframe

Ministries 중국 지부의 집행이사며 "Speaking by Faith"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이자 책 시리즈 "New Songs for Wanderers" 발행인)은 중국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승인되지 않은 예배, 설교, 교육, 훈련 및 온라인 동영상(심지어 링크 공유까지)을 금지함에 따라 시편 90편을 목상하기 시작했다(Chinese Christian Media Ministries Face Bitter Winter of Censorship). 다음은 크리스체너티가 게재한 제리 안 목사의 글이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허가 없이 인터넷상에서 설교하거나 종교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거나 설교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하거나 링크하거나 인터넷에서 종교 활동을 조직 및 수행하거나 종교의식을 생중계하거나 녹화한 동영상을 게시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며 공공 및 국가안보국을 포함한 5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규정을 규정했다.

몇 달 전에 나는 성경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꿈을 꾸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시90:1). 꿈에서 나는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물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우리 사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수

채널보다 더 중요하다. 역사 중 지금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말한다.

사역에 있어서 이 사건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제약이며 위기이자 도전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동료들과 나는 적극적으로 대처 전략을 모

적용된다. 독자층이 일정 인원에 도달하면 동일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e-zine, 팟캐스트와 비디오 플랫폼은 기독교 콘텐츠에 대해 수년 전부터 엄격한 제한 조치를 한 반면 위챗은 실제로 가장 최근에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자체 웹사이트와 앱을 구축 및 개선해 자체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웹 사이트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차단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우리는 중국의 엄격한 통제가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위챗과 소셜 미디어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시90:1) 자체 웹사이트와 앱 구축 및 개선으로 생존 할까? 온라인 회의 금지되면 메타버스를 선택해야 할까?

단인 위챗(WeChat) 채널이 중국 정부에 의해 영구 폐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첫 번째 채널이 폐쇄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하루 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2개의 주요 채널이 모두 차단되면 우리 사역이 이전만큼 많은 영향력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중국 기독교인이 알고 있듯이 위챗은 거대하고 강력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중국인들은 위챗을 사용해 주문하고 티켓을 구매하고 거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위챗의 공개 계정은 모든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포털이자 진입점이 됐다. 인민일보나 CCTV(중국 공식 국가신문-TV 채널)를 막론하고 위챗 채널은 개인 미디어

미니 블로그 플랫폼)와 위챗과 같은 뉴미디어가 전도에 미칠 절호의 기회를 깨달았고 뉴미디어 사역의 개발, 홍보 및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콘텐츠는 위챗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 사실과 거짓 정보, 심지어 지나친 과잉 정보도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주요 중국 기독교 채널이 6월에 위챗에서 삭제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기독교 뉴미디어 속청을 단행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발표된 일련의 '조치'는 앞으로 유예가 없을 것이며 더욱 심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지난 수십 년의

색하고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다른 단체들과 논의했다.

예를 들어 저자세를 유지하고 '빨간 선 위의 춤'이라고 부르는 민감한 용어를 피하도록 권장하는 이들이 많았다. 과거에는 이것이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빨간 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빨간 선은 도처에 있다. 우리는 이 '춤'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리가 제시한 모든 기사와 비디오를 먼저 반복적으로 자체 검열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할까? 소용이 있는 것일까?

다른 대응 방법은 또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탐색하는 것이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은 모든 소셜 미디어에

는 이러한 검열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사교육, 인터넷 거물 기업들, 각계각층의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봤다.

이는 "제일 먼저 부자가 돼라"라고 말한 전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슬로건으로 중국인들이 개인의 부를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계층에 타격을 줬다.

"50년 동안 변화는 없다"고 약속했던 홍콩에서도 적용됐다. 최근에는 중국 본토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사랑을 향상 공연해온 라이브 스트리밍 유명인 웨이야도 탈세 혐의로 13억 위안(2억1,000만 달러)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중국 인터넷에는 안전한 곳도 없고 효과적인 전략도 없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돕기

(Ukraine)

포탄 소리를 듣고 놀라 집을 나와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우리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와 루마니아 그리고 몰도바 등지에서 난민들에게 물과 빵을 나누고 있는데, 늘어선 줄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월드쉐어USA는 난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부름꾼 월드쉐어USA 강태광 목사 드림

UN과 함께하는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Share | 월드쉐어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우리는 성경책이...

(1면에서 계속) 성경책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져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아나톨리아는 이것이 큰 과제라고 말한다. “우리는 성경책이 더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들은 어려운 시기에 위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성경책이 필요하다. 그들은 성경의 위안을 주기 위한 트라우마 치료 자원이 필요하다.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땅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기도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나톨리아도 이 간증을 되풀이한다. 그가 나와 공유한 모든 것 중에서 나는 신앙고백, 국경, 정당 경계를 허무는 교회의 연대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다. 현지 목사인 비아체슬리 흐라모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이 보존되도록

“우리는 러시아에 있는 동료들과 이야기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쳐받는 이 세상에서 크게 봐야 할 복음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화해시키고 절망을 몰아내며 고통받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빛나는 연합된 교회의 비전이다. 전쟁과 정치, 분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모든 것 불허!’...

(2면에서 계속)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것이 시편 90편의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이다. 그 답답하고 화가 났던 6월 아침, 이 말씀은 확신과 견고함으로 나를 위로해 줬다. 이런 난제를 앞에서 나의 첫 응답은 새로운 채널이나 플랫폼을 성급히 찾는 것이 때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이 일깨워줬다. 너무도 압축한 이 시대에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표현의 권리를 둘러싼 엘리트들의 권력과 자본, 독점을 전복시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인 특성이며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는 강력한 조처와 바라건대 더 강력한 대응책 간의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한 시기 속에서도 해외 중국 교회의 온라인 선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12월 17일, 리 프레임 선교 및 기타 협력단체들은 줌으로 제13회 인터넷선교포럼을 개최했으며, 올해 주제는 “메타버스시대 교회와 선교를 위한 기회와 도전”이다. 참가자 수는 순식간에 500명에 달해 예상을 넘어

보다 더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 새 사역 시기의 주제인 비디오 제작과 뉴미디어 운영을 지속할 것이다. 모든 시대와 매 계절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아침이든 저녁이든 봄, 여름, 가을 또는 겨울이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하실 하나님의 주관하심



물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일은 너무나 부서지기 쉽다. 결국 새로 발표된 정부 조치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중국인들은 항상 “당신 위에 정책이 있고 나의 아래에는 길이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뉴미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아 꽃을 가꾸는 법을 배울 기회가 생겼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미시건으로 이사한 후 가을에 많은 꽃과 나무들을 심고 추운 겨울이 식물들을 더 튼튼하게 해 더 일찍 꽃을 피운다는 것을 배웠다. 가을은 식물들을 심는 계절이기도 하다. 암울해 보이는 겨울이 사실은 또 다른 성장의 계절인 것이다. 위챗과 중국 인터넷의 흑독

을 믿는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다(전 11:6, 고전3:7). 시편 90편 마지막 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죽음보다 미움이 더 아프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언론들은 “아주 작은 퍼센트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었다”고 보도했다. “전 국민의 77.1%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승자는 16,394,815표로 48.56%의 득표율, 패자는 16,147,738표로 47.83%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47,07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보도 앞에 3위 이하 다른 후보들의 존재가치는 전혀 드러날 수 없었다.

한 명의 승리자와 한 명의 패배자를 대조시키는 기사들의 갈등구도를 보며 시청률을 올리려 애쓰는 TV드라마의 스토리와 겹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난히 부정적 성향이 많았던 대선후보들을 세워놓고 ‘저쪽이 더 나쁘니까 안된다’는 논리는 ‘내 쪽은 그래도 낫다’라는 허울 속에 갇힌 민심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적나라한 표현들에 둘러싸인 채 총알처럼 비수처럼 날아다니며 끝나지 않은 선거전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선거소식이 전해지는 사이사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탱크부대와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기는 피난민들이 대조되는 화면, 길가의 버려진 시신의 모습들이 눈에 밟힌다. 말과 글이라는 무기로 처절하고 야비하게 싸우는 선거전쟁으로 온 국민이 미움의 강에 빠져버린 시각,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실제로 날아드는 포탄 앞에서 죽음의 공포로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을 겪어내고 있다.

물론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경제를 담당해야 하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야 하고 그 속에서 교회도 맡겨진 영적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터전을 총알이 박혀 상처가 썩어 들어가고 숨이 끊어지는 실전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교인들마저 끼어들어 한마디씩 주장하는 이 전쟁터는 죽음보다 미움이 훨씬 더 강렬하게 춤을 추는 것만 같다. 우리가 가슴 벅차도록 만난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이었길래 이토록 거친 언어로 공격하고, 감정에 휩싸인 놀림감으로 만들어버리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가. 설교원고도, 신학논문도 그렇게 질서정연(秩序井然)하고 조리(條理)있게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목사들마저 도무지 논리도, 앞뒤도 맞지 않은 자기감정에 빠진 글 속에서 허우적 대고 있는 것인가.

피 흘려 죽는 죽음보다 더 근원적인 영적죽음을 다루는 교회가 참 생명을 놓쳐버리고 미움과 증오의 강을 허우적대는 사이에 처참하게 찢어지는 마음을 쳐다보기라도 하고 있는가. 죽음보다 더 강한 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와 마음까지 굳게 해버린 것처럼 1위 지지자의 이마도 2위 지지자의 마음도 굳어버린 모습을 보며 아프다. 이 ‘가난한 심령’들을 어쩌할 것인지 에스겔은 통탄하며 외치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 해외 한인사회를 밟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다 슬프다. 고유가(高油價)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현실이 슬프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슬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대해야 한다. 그 찬란한 ‘예수 믿기의 기쁨’을 소유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어령 선생이 남긴 말을 기억하면서, “그 슬픔에 이르기 전에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별을 보며 즐거웠어요. 하늘의 별의 위치가 불가사의하게 질서정연하듯 여러분의 마음의 별인 도덕률도 몸 안에서 그렇다는 걸 잊지마세요.”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미움을 쫓아내고 형제우애와 사랑을 공급해내는 교회의 역할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기대할 뿐이다.

djlee7777@gmail.com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university campus,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Realizing global talent discovery and training), and details about the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including degree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승자와 패자

지난주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선거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모두가 승자가 된다면 좋을 텐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패자가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아마도 전국에서는 모두 승자가 되는 곳일 텐데 타락한 세상은 그렇

지 않다. 그래서 아픔과 슬픔이 있고 탄식과 서러움이 존재한다.

운동경기에서 이긴 자는 승리의 기쁨 때문에 링 위에서 펄떡펄떡 뛰며 표호 한다. 손을 내두르며 자신의 강함을 관중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은 박수로 응수하기도 한다. 그런데 링의 한편에서는 패자가 고개를 숙이고 통한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이 경기만을 위해 수년 동안 밤낮으로 강훈련하며 인내했는데, 단 몇십 분에 패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하얗게 되고 말았다.

자신의 판단으로는 분명 이긴 경기였는데, 주심이나 부심

들이 점수를 이상하게 준 것 같다. 겨우 한 점 차이로 패하였으니 너무나 안타깝고 또 서럽기만 하다. 후회가 막급하다. 조금 더 저돌적으로 공격하였더라면 이긴 경기가 되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그런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모든 관중들은 오로지 승자에게만 박수를 보내고 패자에게는 눈길한번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세상의 냉혹함이다.

그러나 승자는 패한 자를 보듬어 줄 줄 아는 넉넉함이 요구된다. 우리는 현재 넘치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대 간, 지역 간, 성별 간, 국가 간.

당선인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표를 주었거나 주지 않

은 자도 똑같은 국민들이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해야 한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위대한 정치가는 해낸다. 우리는 요즈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하나 된 모습을 통해 큰 감동을 받게 된다.

거대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데 며칠이면 점령당하게 될 줄 알았는데, 끈질기게 버티는 모습을 보고 온 세계가 놀라고 감동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토저토로 돕는 길을 선택하고 또한 전 세계에서 자원병으로 나서기도 한다. 땀땀 뭉쳐서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며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합되고 뭉치는 모

습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의 힘은 보통 때의 열배, 백배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우리의 선출된 지도자도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주어진 직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수행하는 지도자, 특히 힘들고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지도자. 실패하여 울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그 얼마나 감동적일까 싶다.

링컨이 위기에 처한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처럼,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신두현 목사
(뉴욕천성장로교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단순히 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운 좋다. 축하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를라호마에 사는 40대의 남자는 운이 좋아서 200만 달러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자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고 아내와 딸을 총으로 쏘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보십시오. 행복은 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면 인생의 행복이 막 넘칠 수도 있고 배우지 못하면 인생의 불행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배워야 할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질: 남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 되기

20-21절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 밖에 내게 없다는 뜻은 ‘디모데같이 남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진짜 관심이 있고 남에게는 가짜 관심을 보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드뭅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인정하는 것은 세상엔 자신에 훨씬 많고 남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이는 적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좋은 차도 타고 집 장만도 하고 사업도 성공했는데,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많지 않을까요? 197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수 윤항기 씨가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행복을 노래하며 살았는데, 오늘날은

여유가 있습니다. 실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에서 “행복해요”라는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역사에서 지난 200년 동안 인쇄된 백만 권의 책을 연구했다는 보고서를 보면 과거에 많이 쓰던 말들과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말들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말들은 (내가 I), (나를 me), (내 것 my), (내 선택 choice),

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교회 방문하신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한인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이 망하고 내가 잘되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한인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이든 미국 할머니들을 정성껏 보살피자였다고 합니다. 그랬

다. 아내 입에서, “나는 남편을 좋아합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줍니다.” 이런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들 입에서 어떤 칭찬이 나와 합니까? “내 아내가 교회 가서 변했습니다. 남편인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란 말에 교회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나는 OO교회를 좋아합니다. OO교회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이민교회들이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과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질: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 되기

지금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분을 떠올리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름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쁜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사회의 권력자들 부인이 그랬습니다. 아마도 미스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보디발 장군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때 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9:19절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고 했습니다. 분노했으면, 요셉을 죽여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왜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계시적인 사색을 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넣은 그날 밤 보디발 장군과 그의 부인의 부부싸움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면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는 배우를 가리켜 “히퍼크리트, 우리말로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위선자라는 단어가 극장의 가면 쓴 배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선자로 부를 때는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내에게는 이렇게.” 진실함이 없이, 상황극 하는 배우 같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크레딧이 안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좋은 사람들을 머물게 하려면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처럼 진실한 사람 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행일치하면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면 됩니다.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에 관한 설명에는 항상 신실함이 들어갑니다. 말한 대로 사는 디모데였습니다. 약속하면 지키는 디모데였습니다. 제가 두 문장을 말할 텐데요,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신실합니까? 그럼 됐습니다!”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우습지요? 돈이 모든 것을 커버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약속하면 지키니까. 말한 것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을 맡길 때는 거의 100% 신실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나? 유능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유능한데 맡기지 않는다고 푸념한다면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우리가 붙들 여러 가지 가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본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합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것이 성도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도 세상에 신실함을 보이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ambcmguy@gmail.com

행복은 학습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9-24절



(스페셜 special) 같은 말들이고, 사용빈도가 줄어든 말들은 (책임 responsibility)와 (기도 prayer)였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면서 행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텔레비전 광고들 보십시오. 잠재의식 속에, “당신이 중요하! 당신의 기쁨이 최고다!” 이런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나요? 오늘날 모든 것이 자기중심성,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되었든 관심 밖입니다. 이런 영향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 어떤 한인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미국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교회는 시설은 멋진데, 교인은 1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할머니들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9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한인교회는 은근히 미국교회가 더 줄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교회 문 닫아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바른 생각일까

더니 한인교회가 점점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몇 년 지나서 인근 마운틴뷰의 멋진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기중심의 결박을 푸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기중심성을 뚫지 않고는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처럼 진심으로 남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년을 좋아하는데요, 노년을 볼 때마다 참 성경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은 자기중심이 없습니다. 광고문구 보십시오. “나는 도넛을 좋아합니다. 도넛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I love donuts. They are not self-centered at all).” 구멍이 뽕 뚫려 있으니까 자기중심이 없습니까? 노년이란 말이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나는 신주현을 좋아합니다. 목사라서요? 아닙니다. 신주현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서요!” 저는 이런 사랑 되고 싶습니다.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인가?”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합갈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누가 안다고 합니까? 너희.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만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용한 인물들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신음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를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생활 할 때였

보디발 장군의 부인: 요셉을 감옥에 보내다니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를 믿는다. 이 러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크레딧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레딧이 좋으면 죽지 않습니다. 크레딧이 좋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사회는 크레딧 사회니까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낮으면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의 신용조회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 사람은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아! 가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신용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면을 몇 개씩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역할이 끝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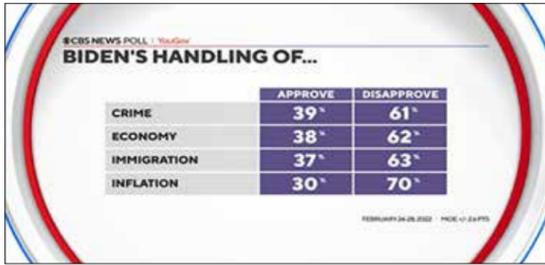
하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견해(상)

2022년 3월 1일,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고 처음이자 정식으로 국정연설을 했으며, 비록 대부분의 주류미디어들은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Approve-바이든이 잘하고 있다. Disapprove-바이든이 잘못하고 있다.

국정연설의 저조한 시청률

이번 바이든의 국정연설의 시청률인 5%(38Millions)는 미국 역사상 30년 만에 기록적으로 낮은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트럼프(45.5millions), 오바마(48millions), 조지 부시(51.8millions), 빌 클린턴(45.8millions). CBS의 조사에 의하면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rating을 도표와 같이 보고했습니다.

CNN의 설문조사

지난 2월 초 CNN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약 1년 전 취임한 후 "제대로 한 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많은 수의 응답은 압도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였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하는 첫 번째 국정연설(Speech at the State of the Union)에 대한 평가에서 반 이상의 설문조사 응답 역시, "한 가지의 성공 사례도 찾기 어렵다"였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바이든이 이 나라에 어떤 유익한 일을 했는지 한 가지도 떠올리기 힘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반기독교 극좌파들 편에서 주로 언론플레이어를 했던 CNN에서 이런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내놓은 것이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Ron DeSantis는 CPAC 모임에서 "바이든은 19세기 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악의 시작을 했다", "바이든 선거전영은 나라를 단절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었지만 바이든 정

권이 들어선 지금 이 나라는 오히려 분열과 파괴가 더 가중되었으며 오로지 바이든 국정능력의 평가만이 이상하게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여러 미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사를 반영했습니다.

늘 편향성이 높은 주류언론들마저 바이든이 현재 그의 재임기간 중 가장 낮은 지지율(37%)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낮은 시청률과 지지율일까요? 미국 시민들이 현 바이든 행정부에 갖고 있는 관점과 이번 국정연설에 대한 팩트 체크(fact check)를 나눕니다.

미국시민들이 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지 중대한 정책 실패들은?

1. Border Crisis(국경위기)-"국가적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백악관"

현 국경상황: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과 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정책 중 하나는 "Open Boarder" 국경을 열어 누구든 (불법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 결과 미국 국경의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가고만 있다.

바이든의 의견: "이미 미디어(주류)에서도 알리고 있듯이 국경이슈는 그냥 seasonal problem(지나가는 문제)일뿐이다."

국경 조사 리포트 하이라이트: 미 세관과 국경 수비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따르면 미국 국경원들이 기록한 1월 불법 밀입국자숫자가 153,941(15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마쳤던 2021년 1월에 비해 2배가 높은 숫자이며, 2019년 1월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월에 발표된 The Federalist의 Jordan Boyd은 "겨우 2022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3개월 만에 미국은 남서부 국경쪽에서 50만(nearly half a million) 가까이 되는 밀입국자들과 맞닥뜨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시민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두 잣대(double standard)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펜데믹 기간 동안 자신들이 내놓은 "남을 위해 꼭 백신받기"라고 한 코비드-19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들에게 비난받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여러 COVID 전문 의사들과 CDC를 통해서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과 아이들에게까지 백신을 의무화 시킨 점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미국 시민들은 직장을 잃거나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거부당하는 모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안 받아도 모든 것에 출입허락이 되는 사람이

들이 있었으니(!) 바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열어놓은 국경을 통해 수 백만명이 자유로이 백신의 증명도 신분증도 없이 국경을 넘어 들어올 뿐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은 법적 신분증과 백신증명서 없이도 연방정부의 특별 수호를 받아 비행기까지 탈 수 있도록 한 것이 드러났으니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정책인가?

국경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장 연약하고 순수한 어린이들과 가정들에게 막대한 피해 "열린국경"정책을 마치 "선한사마리아인" 처럼 미화시켰지만, 상식이 있다면 국경을 아무에게나 여는 것은 마치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자다가 도둑이 들어와 온가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국경에서 일하는 경찰들, 보더 파트로, FBI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여럿



MS13의 모토: Kill, Rape, Control, 요10:10의 사탄의 목적과 똑같음

조사단체들의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차세대와 가정사역을 하는 저희 Tvnext 단체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국경위기는 바로, 국경을 통해 들어와서 미국 전역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남녀 어린이들 성매매(Sex Trafficking), 조절이 더 힘들어지는 마약입수와 청년들까지 쉽게 구하는 마약이슈.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정책법안들, MS13과 같이 매우 잔혹한 갱단조직들을 더 담대하게 해주는 미약한 정책과 법안들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홀로 지금까지 10여년간 살아온 여집사입니다. 최근에 한 기독교인 남성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혼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요? 또 남편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품은 채 재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흥 집사

A: 여자가 혼자서 사는 것은 외롭고 쉽지 않습니다. 재혼문제는 사실상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혼처럼 둘만이 아닌 자녀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님의 경우는 남편과 사별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재혼의 자유가 있습니다(롬7:2).

사별한 남편에 대한 생각이 깊으면 아직 재혼시기 아닌 듯

그러나 문제는 남자 쪽에 있습니다. 그 분은 부인과 사별이 아닌 이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혼이 성경적인 이혼인가 하는 것을 따져볼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혼하는 것은 한 가지, 곧 배우자가 간음한 사유가 있을 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재혼하면 그자체가 간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19:9). 그 분의 아내가 간음한 경우 이혼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혼해서도 안 되며 그 이혼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이혼이 아닙니다.

또 전 부인이 현재 재혼했다면 남자는 해방이 되어 재혼의 자유가 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면 그 경우에도 성경에서는 재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마19:9-10). 그렇다면 이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잘못된 이혼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되 회개했다면 다시 본래의 아내와 화해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한 것처럼 전 배우자가 이미 타인과 결혼했다면 재혼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장성한 아들들과도 의논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유익한 줄 압니다. 결혼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대한 생각을 가슴에 품은 채 재혼하면 죄가 되는가? 라고 질문하신 여집사님의 경우 재혼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전 남편을 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점은 서로가 인정하고 재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어 재혼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아직 재혼할 때가 아닙니다. 집사님의 앞길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무엇보다 생명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실은 어마 어마한 일이다/그는/그의 과거와 현재와/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부서지기 쉬움/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마음이 오는 것이다-그 갈피를/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마

음,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내면/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방문객", 정현중).이 시를 처음 읽고 이렇게 좋은 시를 쓴 작가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고 또 너무 부러웠다.아니나 다를까 철학을 공부한 작가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역시 특별했고, 이렇게 좋은 시로 우리의 마음에 환대를 주었다. 특별히 교회 사모인 나는 이 시를 읽고 교회에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한 사람의 일생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 사람의 일생을 누가 무슨 자격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가? 한 손에는 벗겨진 초코렛바를 다른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인형을 들고 터벅터벅 홀로 걸어가는 한 소년의 서러운 발걸음이 눈물을 쏟게 한다. 알록달록 컬러풀한 예쁜 외투를 입은 걸 보니 남자아이여도 엄마가 멋쟁이로 키운 것 같은데...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잔인해 도 되는 것인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에 그저 설사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했고, 지금 시대에 무슨 전쟁? 하며 쉽게 끝이 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보도되는 참혹

한 뉴스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부서지고 있는 것인지 차마 가늠조차 못하겠다. 교회 예배시간에 소그룹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약간의 도네이션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 소년의 떨고 고개에 어른으로 염치가 없다. 오랜 시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라도 이 아이들에게 수, 연어, 생 활습관 등을 잘 가르쳐야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에 내가 더 많이 배우고 그 기쁨과 보람이 크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아이들

을 사랑하며 가르치는 것처럼 내 아이들도 다른 어른들의 도움과 가르침을 잘 받고 있겠지... 생각하며 스스로 안심도 한다. 전쟁 뿐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 이 전쟁도 분명히 끝이 나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 믿고 지켜볼 것이다. 교회회기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다. 온 몸과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 어마어마한 그 생(生)을 내게 주신 이가 있다.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NRB, '비판적종교이론' 규탄 결의

전미종교방송(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 이사회가 "비판적종교이론(CRT)이 '반기독교적' 사상을 발전시킨다"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기독교 방송 단체를 대표하는 NRB는 지난 8일 LA선벨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담임 존 맥아더 목사)에서 열린 연례대회에서 '비판적 이론과 반기독교 이데올로기 반대'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승인했다.

해당 결의안은 "비판적(인종)이론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세속 문화의 부패 구조 속에서 변성, 해택을 받거나 이를 유지한다고 간주하는 누군가의 발 앞에 둔다"라며 "(여기에는) 교회, 전통, 가족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마저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또 "비판적 이론은 공유된 역사와 가치관의 침식, 폭력에 대한 인간의 선택권 양도, 군중 지상주의,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 약화를 촉진시켜, 인간의 엄청난 고통과 진리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나아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을 받아들이며, 세속적 유포에 대한 거절 약속을 거부한다"면서 "미국인으로서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한 합당하고 성경적인 이상을 가리키는 건국원칙(인류 평등, 하나님이 주신 권리, 자치 정부)을 계승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소중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NRB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별개로 구원을 주장하는 반기독교 문화 체계를 거부하고, 교육, 학계, 기독교 사역, 성경 교육에서 비판적 이론의 영향력을 반대하며, 성경의 역사적 진리를 현대 문화 이슈에 충실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비판적종교이론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연구와 관련된 사회 및 정치 철학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영감을 받은 운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특히 칼 마르크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사상을 바탕으로, 비판적 이론가들은 철학의 주된 목표가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억압받는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미국사회가 조직적인 인종차별주의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양극화된 사상 학파인 비판적 종교이론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증가해왔다.

이 이론은 1960년대 민권운동이 이룩한 이익의 뚜렷한 감소를 설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로스쿨에서 처음 등장했다.

전미종교방송의 올해 회의는 '부끄럽지 않음(Unshamed)'이란 주제로 11일까지 열려 미국의 교회 지도자 3,500여 명이 참석했다.

존 맥아더 목사는 첫날 강연에서 "(비판적종교이론의) 배후에는 좋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정치적 로비나 실용주의, 천박한 복음 오락, 감정적 조작, 죄악과 죄인에 대한 허용을 통해 복음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은 마귀의 일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 성공회-감리교 간 '완전상동' 협정 보류돼

미국연합감리교회(UMC)의 총회연기로 성공회와 연합감리교회 간에 '완전한 상동(full consum)' 협정이 또다시 보류됐다고 미국 크리

스천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UMC 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총회를 2024년으로 연기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이로 인해 UMC는 해당 협정 결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2년 뒤에 재개한다.

이 협정은 성공회와 연합감리교회가 서로를 사역의 동반자로 공식 인정하고, 서로의 세례와 성찬식도 인정하며, 함께 예배하고 성직자를 교환하는 등 완전한 교감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결의안은 2019년 UMC 주교회의가 승인해 2020년 5월 미네apolis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이 총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 번째 연기되고 있다.

성공회뉴스서비스(ENS)는 미국성공회 총회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관계에 관한 회의에서 회원들이 "UMC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때까지 협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UMC 장정은 현재 "동성애는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고, 동성혼에 대한 축복과 동성애 성직자의 서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UMC 내 보수파의 상당수가 교단을 탈퇴해 새 교단출범을 공식화해 진보 감리교인들은 교단의 공식입장을 뒤집을 기회를 잡았다.

종교민주주의연구소 유엔액션(UM Action)을 비롯한 교단 내 보수파들은 세 번째 총회 연기 결정에 대해 "이러히 현명하지 못하며 잠재적으로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액션은 "위원회의 다수와 그들이 이 파괴적인 길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혼란과 더 많은 교회 분열, 승자가 없는 소송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UMC 탈퇴를 선언한 일부 보수파는 지난 3일 "총회의 분리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5월에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세계감리교회 측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일부 지역교회는 공정하고 정당한 조항들을 협상할 용의가 있는 연례회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불행히도 다른 교회들은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적 지도자 위원회는 (교단을) 일찍 떠날 사람들이 적절하고, 건축과 성장을 시작하며, 추후에 다른 이들이 합류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세계감리교회를 출범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 총대주교에 "침공지지 철회하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공세를 펼치며 수도 키이우에 가까워진 가운데,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100여 명이 최근 러시아주교총대주교 앞으로 러시아 침공에 대한 지지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교단과 자선단체 대표, 저명한 작가와 활동가 등 각계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서한에서 "전쟁이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에 대한 끔찍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키티 대주교가 러시아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우크라이나에서 적대 행위와 전쟁을 종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조지타운대학교 신앙과정의센터에 따르면 키티 대주교는 지난 5일 설교에서 우크라이나

가 러시아 총성과 제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푸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번 전쟁을 "LGBT 세뇌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서구의 가치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 묘사한 바 있다.

키티 총대주교는 또 2012년 푸틴의 통치를 '하나님의 기적'이라 칭하며 반대하는 자들을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에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키티 대주교에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이 기간 사순절의 정신으로, 이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인간의 고통을 생각하며 이 전쟁에 대한 지지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떤 정치적 어젠다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날마다 목격하고 있는 파괴와 공포에 대해 어느 쪽도 종교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함을 증언한다.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은 모든 국가와 이념에 따른 주장을 초월한다"고 했다.

이번 공개서한에 서명한 지도자들은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 회장 월터 김 목사, 미 가톨릭자선단체 회장 도나 마크한 수녀, 전미교회협의회 테레사 제퍼슨-스톤 의장, 미국캐나다 크리스천교회(디사이플스지저스) 회장인 테레사 호드 오웬스 목사 등이다.

휘발유 가격상승은 누구 탓?

요즘 미국 주유소 직원 들에겐 잡일이 하나 생겼다. 주유기 가격표 옆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해냈다"고 말하는 모습에 담긴 '바이든 스티커'를 떼어 내는 일이다. 휘발유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일부 소비자들이 표현한 것이다. 바이든 스티커 판매가 최근 급증했다는 업주, 하루 4-5번 정도는 이런 스티커를 떼어 내고 있다는 주유소 직원 등의 인터뷰도 보도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가격 인상 책임론의 단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 인상의 책임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돌리려 노력 중이다.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의제'로 에너지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다.

가격 인상 책임론 공방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푸틴에게 상처를 줄 것이지만, 미국에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푸틴의 가격 인상"이라고 규정할 뉘 비이 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곧 푸틴 책임론을 반복하며 가세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이건 도덕적인 이슈다. 아무도 러시아의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격 인상이 러시아의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치러야 할 도덕적 대가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당파적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민주당에 '푸틴의 가격 인상'을 반복적으로 언급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 전략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도 "백악관이 푸틴 대통령을 몰가 인상에 묶어두려는 메시지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책임론을 언급하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공화당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는 적극 찬성하지만, 휘발유 가격 인상은 친환경 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한 바이든 행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불행히도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은 휘발유 가격에 큰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정책으로 미국의 에너지 잠재력을 약화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가격"이라고 공격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우리는 처음으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했다. 미국은 에너지 순 수출국이었다"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죽이고, 국내 석유 시추를 제한하고, 화석연료 기업

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가격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수송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며 취임 첫날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했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라디오 진행자인 휴 휴이트는 워싱턴포스트(WP)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압박과 적절한 제재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며 "그러나 푸틴의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전 인플레이션 수치를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인은 바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처칠 연설로 영국 울린 젤렌스키

"우리는 포기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숲에서, 들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영국 하원에서 화상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맞선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유명한 연설을 재현했다. BBC 방송 등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늘에서 바다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칠 총리가 1940년 6월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에 고립돼 나치 독일군에 전멸당할 위기에 몰렸던 영국군과 프랑스군 수십만명의 철수 작전에 성공한 뒤 하원에서 했던 연설을 인용해 영국 의원과 시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한 사람의 시민이자 커다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꿈을 품고 여러분 앞에 섰다"고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영국이 나치 독일에 맞선 2차 대전에 비유했다.

그는 "나치가 당신의 나라를 빼앗으려 할 때 당신은 나라를 잃고 싶지 않았고, 영국을 위해 싸워야 했다"며 우크라이나인들도 러시아군에 맞서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명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를 가져와 우크라이나는 "살기(to be)"로 결론 지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영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 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살 수 있었던 아이들 15명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옆에 세워둔 채 국방색 반소체 티셔츠 차림으로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우크라이나어로 연설했고, 영국 의원들은 헤드셋으로 실시간 통역을 들었다.

하원을 가득 메운 여야 의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시작되기 전 기립박수를 보였다. 외국 정상이 영국 하원에서 연설을 한 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상 처음이다. 그간 외국 정상은 주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연설했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이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보여주듯 용기에 수백만명이 엄강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모험에 실패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자유로워질 때까지 영국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42. 이선일(1867-1928)

이선일은 1867년 평안남도 중화군 해암면 동곡리에서 연안 이씨 가정에서 태어났다. 1910년 미국 연방정부 인구조사에 따르면 그는 1875년에 박순덕(Pak Sun Dok)과 결혼한 후 평양 상수구 밖에서 거주했다. 그의 호적표에 의하면 그의 직업이 유(儒)로 되어 있어 유학자였거나 서당 선생으로 보인다고 한다.

호놀룰루

이선일은 1905년 4월 27일에 일본 고베에서 퍼시픽 메일 선박회사 소속 시베리아 선박으로 그해 5월 8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당시 그는 40세였다. 공자가 40세에 이르러 세상일에 미혹되지 아니하였다는데 이선일도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였다. 그는 38세 된 아내, 11살의 이승필 그리고 3살 된 이승신 등 아들 3명과 함께 노동 이민으로 하와이에 왔다. 19살 된 아들은 성인이었으므로 별개 여권을 받았고, 출가한 두 딸은 동행하지 않고 한국에 남았다.

1906년 1월부터 시작되는 출납부에 채소, 두부 등을 판매한 것이 자세히 기록되었고, 또 채소나 과자를 누가, 얼마나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어 이선일이 어느 농장 매점에서 사무원으로 취직하였거나 직접 상점을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는 하와이 한인 이민사 연구가 이덕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해에 인천 내리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하며 하와이 노동이민을 추천한 조지 H. 존스(조일시) 선교사가 편취블 스트리트 상상에 있던 호놀룰루 한인 감리교회를 방문하고 방문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는 민찬호, 현 순, 김이제, 홍치범 등의 목회자가 있었고, 이선일은 중간 줄 맨 오른쪽에 있었고, 막내 아들 이승신은 모자를 쓰고 앞줄에 앉았다. 이승신은 보스턴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2년간 개업하다가 심장마비로 요절하여 이선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방 전도사

이선일은 1907년에 평신도 지역 전

도사로 미국 북 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의 하와이 선교부에 등록했다. 그해 하와이 선교부는 그를 그가 개척한 하와이섬 호놀가이지교회로 파송하였고, 이로써 그의 선교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듬해 1월 보고에 따르면 호놀가이지교회에는 학습교인이 3명이었고, 세례교인이 6명이



이선일 목사

생은 총 30명이었다. 그리고 예배당이 두 곳에 있었고 이들 시가는 300달러였으며, 한 해 동안에 예배당과 사택을 위한 건물 관리비로 150달러를 사용했다. 그리고 16달러를 연회에 상납했는데 해외선교비로 1달러, 내지 선교비로 5달러, 주일학교를 위한 선교비로 3달러, 일반 교육비로 1달러, 주일학교비로 3달러, 자유인 보조비로 1달러, 미국 성서공회비로 1달러, 부인 내지선교비로 1달러였다.

1909년에는 이선일이 지난해에 섬겼던 하와이섬의 코하라교회 외에도 유니온밀교회와 울리교회도 맡았으므로 흠어진 교회를 순회전도하였다. 1년 동안 섬긴 때인 1910년 3월에 코하라 교회는 학습 교인 34명과 세례 교인 16명이 있었고, 지난 한 해 동안 5명이 세례를 받았고, 한 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주일학교는 두 곳에 있었는데 직원과 교사가 5명에 총 25명이 등록했고, 엠위스 연맹에 15명이 가입하였다. 어려운 교회재정 사정에서도 해외선교비로 25달러와 부인 내지 선교비로 1달러를 연회에 상납하여 선교하는 교회에 따르면 이선일은 100점 만점에 89점을 맞아 평신도 전도사직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선일은 1910년 3월에 오아후 섬의 에와 교회와 와일내(Waianae)교회로

김학수, 김화일, 김기두, 김경관, 김난수, 김봉룡, 김상운, 김석현, 김덕운, 민찬옥, 오상원, 배운오, 박치룡, 박희실, 박덕순, 신치봉, 신삼복, 서태호, 도기영, 이창환, 이준익, 이경수, 이복근, 이사선, 이시화, 이성운, 이태제, 이태홍, 이용화, 엄준필, 윤태영이었다.

이선일은 1911년 3월에도 에와교회와 와일내교회를 섬겼다. 그해에도 에와교회에 김화일이 권사로 활동했다. 이듬해 3월 보고에 따르면 학습교인이 29명으로 늘었고, 세례교인도 23명으로 늘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 5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2명이 세례를 받았다. 한글학교에 교사와 직원이 3명이었고 아기를 포함하여 학생은 19명이었다. 엠위스 연맹에 16명이 등록했다. 예배당은 1,500달러로 평가되었고, 본 교회는 내지선교비로 20달러, 일반교육비로 2달러, 주일학교비로 2달러, 자유인보조비로 1달러를 선교부에 보내 25달러를 상납했다. 그해 그는 에와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이선일은 1912년 3월에 목사 후보자 과정에 등록했다. 이해에 그는 가와이섬의 막가웰리교회와 각가교회로 파송 받았다. 막가웰리교회에서는 남새운 권사와 함께 동역했다. 그리고 그해 그는 엘리엘리교회와 골로아교회에 파송한 전도사를 지도했다. 엘리엘리교회에는 설운호 권사가 있었고, 골로아

그리고 조지 패티와 Y. 미우라와 함께 이선일이 하와이 선교부의 절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해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지배인과 사탕수수밭의 외국 노동자와 한인 노동자가 기부한 550달러로 막가웰리에 한인들을 위한 학교 건물을 건축했다.

1917년 3월에 임준호와 조연택과 함께 이선일이 캘리포니아 연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와 같이 두 교회를 섬겼다. 1년간 섬긴 막가웰리교회에는 유아세례 교인 4명과 학습교인 5명이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3명이었는데 학생 수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예배당 부지와 건물은 500달러에 해당했고, 1년간 건물에 든 비용은 3달러였다. 연회에 26달러를 상납했으며, 이중 훈련비가 24달러였고, 기타가 12달러였다. 김진호가 막가웰리교회에서 권사로 활동했다.



유니온밀교회(1909년)

골로아교회는 세례교인 7명과 유아세례교인 11명이 있었고, 한 해 동안 학습을 받은 자가 4명이었고, 학습 공부하는 자가 22명이었으며, 이해 등록교인은 50여 명이었다. 예배당 시가는 1,000달러였고, 그해 건물 관리비로 50달러를 소요했으며, 훈련비로 연회에 상납한 금액은 20달러였다. 그리고 하와이 선교부의 절제위원회에서 조지 패티와 Y. 미우라와 함께 이선일이 활동했다.

이선일은 1918년에 자진하여 교회사역을 하지 않더니, 이듬해 1919년에는 신병으로 교회 사역에서 물러났고, 3년 후인 1922년에 은퇴했다. 1928년 2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부 제23회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그는 그해 7월 7일 새벽 5시에 호놀룰루에서 향년 6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튿날 오후 2시에 호놀룰루 한인제일감리교회에서 흉한식 목사의 주례로 장례식이 있었다. 윌리엄 H. 프러이 감독은 한인들은 그를 아주 존경했고, 최고의 학자로 인정했다며 한인 교인들에게 그는 품위 있는 복음 사역자였고, 친절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동정적이었으며 항상 신실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서 농장관리와 그를 아는 백인들도 한결같이 그를 가우이 섬에서 노동하는 한인들에게 조용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친 목회자로 평가하였고 그에게 감사했다고 적었다.

1928년 8월 9일자 신한민보는 '이선일씨 목사 장사'라는 제하에서 "미감리교 목사로서 10여 년 시무하던 이선일 목사는 노병으로 인하여 여러 달 신음하다가 마침내 7월 7일에 세상을 이별한 바 동 교회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거행한 지 3일 후에 추도회를 하였습니다"고 보도했다.

damien.sohn@gmail.com

하와이섬 여러 교회에서 평신도 전도사로 순회선교 사역 감리교 목사로 목회와 학교장으로 섬기다 신병으로 별세

었으며, 주일학교에는 직원과 교사가 2명이었고 학생은 15명이었다. 그리고 어려운 이민생활가운데서도 4달러를 연회에 상납했는데 해외선교비로 2달러, 교육비로 2달러, 부인 내지선교비로 1달러, 연회비로 1달러였다. 그가 목회했던 호놀가이지교회는 오늘날 호놀가연합감리교회로 변신하여 2021년에 114주년을 맞았다.

이곳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연습회'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힘썼는데 특별히 교육에 열심히 있어 의무교육을 하기로 하고, 매달 5달러를 학교로 기부하였다. 이들 기부자는 이석현, 박성환, 차재환, 박성근, 이준근, 유기준, 김기순, 강만근, 서치운, 최진조, 한성용, 김보겸, 이창하, 권성재, 김광현, 김창상 등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이선일은 1908년 1월에는 하와이섬의 코하라교회로 파송받았다. 파송 받은 때의 코하라교회에 학습교인 40명과 세례교인 27명이 있었고, 주일학교가 두 곳에 있었는데 각각 교사가 한 명씩 있었고 학생수는 30명이었다. 1년간 섬긴 후인 1909년 3월에는 학습교인이 34명으로 늘었고, 세례교인도 13명으로 늘었으나 지난 1년간 8명이 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는 세 곳에 있었는데 직원과 교사는 총 5명이었고, 학

파송 받았다. 그가 부임하던 때 에와교회에 24명의 학습교인과 16명의 세례교인이 있었고, 주일학교에는 직원과 교사가 3명이었고, 학생은 53명이었다. 그해 에와 교회에는 김화일이 권사로 재직했다. 예배당은 당시 시가로 1,000달러였다. 또한 그는 에와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이선일은 존 M. 마틴 목사와 김유순 목사와 함께 하와이 선교부 절제위원회에 소속되었는데 위원회에 속하기는 처음이었다. 그해 절제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주류 판매 반대연맹'은 점점 성공적이었고, 그 영향은 좋았으며, 연맹 회장 존 G. 울리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곧 주류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본 위원회는 투표를 의와 불의의 세력 간의 싸움으로 간주하고 주류 판매 금지를 위하여 교회 지방 전도사로 임명이 되었고, 고석C가 골로아교회 지방 전도사로 수교했으며, 골로아교회에 김종균이 권사로 활동했다. 그가 파송 받던 해에 두 교회를 합쳐 2명의 학습교인과 14명의 유아세례교인과 22명의 세례교인이 있었고, 교회에 출석하던 자가 73명이었으며, 각각 주일학교가 있었고 총 9명의 교사가 학생 75명을 가르쳤다. 엠위스 연맹에 가입한 자가 18명이었다. 이해에 두 교회간 연회에 낸 상납금은 44달러였다.

교회에는 정인수 권사와 오응택 권사가 있었다.

1913년에는 이선일이 위의 두 교회와 함께 엘리엘리교회와 골로아교회를 섬겼다. 이선일이 1914년에는 위의 네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아 학교도 맡았다.

교회 목사

이선일은 1915년에 감리교 집사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집사목사로 안수를 받은 그는 가와이 섬에 있던 막가웰리교회와 각가교회를 섬겼으며 골로아 학교를 맡았다.

이선일은 1916년 2월에 작년에 맡았던 가와이 섬의 막가웰리교회와 골로아 한인학교를 맡았고, 작년의 각가교회 대신에 골로아교회로 파송 받았다. 그런데 그해에는 남새운 전도사가 막가웰리교회 지방 전도사로 임명이 되었고, 고석C가 골로아교회 지방 전도사로 수교했으며, 골로아교회에 김종균이 권사로 활동했다. 그가 파송 받던 해에 두 교회를 합쳐 2명의 학습교인과 14명의 유아세례교인과 22명의 세례교인이 있었고, 교회에 출석하던 자가 73명이었으며, 각각 주일학교가 있었고 총 9명의 교사가 학생 75명을 가르쳤다. 엠위스 연맹에 가입한 자가 18명이었다. 이해에 두 교회간 연회에 낸 상납금은 44달러였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월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73) 802-1112, eslccross@yahoo.com 62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월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82 328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키운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장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por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유치, 청년,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인양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 생 예 배: 오전 6:00(화/목/토) 주 일 예 배: 오전 10:20(주일) Tel: (800) 423-9700, Cell: (213) 703-9961 5302 Old Bethel Rd, Cresview, FL 32536	인디애나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749-8823, www.omychurch.org 7635 Dean Merlin Dr, LV NV 89139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아: 오후 8: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erwood St, Anch., AK 99516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느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토요일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535-1821(H), (254) 501-6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k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말씀과 땅 (5) - "가인이 성을 쌓고"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교 구약학교수)



"...가인이 성을 쌓고..."(창 4:17). 그 성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2015년 발굴이 재개된 Tell Abu Shahrein이 그 성터 일부일 수 있다. 이라크(Iraq) 남부에 위치한 이 유적지는 1940년대 발굴을 통해 고대 바벨론과 수메르 문명들에 언급된 에리두(Eridu)로 밝혀지게 되었는데, 특히 수메르 왕명록(Sumerian King List)이 이를 인류 최초의 도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에리두를 형성하는 7개의 흙무지 중 Tell Abu Shahrein은 그 규모가 가장 커서 제 1 흙무지(Mound 1)라 불리는데, 그곳에 발굴이 재개되어지며 다시 한번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잠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승을 통해 에리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에리두(Eridu)는 엔키(Enki)를 수호신으로 받드는 성으로서

그런데 이 유적지가 창세기 4장 17절에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한 그 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리두가 바로 가인이 쌓았다는 성일 가능성이 있다.

에리두가 가인이 쌓은 성이라는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리두(Eridu) 유적지(Wikimedia Commons-public domain).

'에리두→가인이 쌓은 성' 가설 위한 2가지 수용제안

- ①엔키 = 가인의 아들 에녹 ②에리두 = 에녹의 아들 이라트

인류에게 주어진 첫 도시였다고 전해진다.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성이 지어진다는 것은 신의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며 곧 그 신을 모시는 것이었다. 성 안에서의 삶 또한 신이 내려준 문명을 받아 사는 것이었다.

특히, 반 인간 반 물고기의 어인 입김이 전해준 예술, 기술을 아우르는 '지혜'가 그들의 도시 국가를 유지하는 문명의 뿌리라 믿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도시는 신의 영역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신이 내려주는 것이라 인식했다. 그들의 신들이 깃들 형상을 빚어 세운 손으로 집도 짓고 벽도 올리고, 궁, 신전, 성벽을 세우며, 이렇게 지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신들의 세상 만들기가 계속되는 그들의 땅에 가장 먼저 지어져 엔키 신을 받든 성이 곧 에리두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두는 대홍수 이전의 일이었다고 전승은 말한다.

바로 그 전설속의 에리두, 인류 역사 최초의 성이라 전해진 그 성이 발견되고 또 발굴된 것이다.

첫째, 가인의 아들 에녹(Enok)이 다름 아닌 메소포타미아 전승이 말하는 엔키(Enki)라는 제안이다. 메소포타미아의 고유명사 엔키가 히브리어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음소변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둘을 같은 이름으로 볼 수 있음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고대인들이 스스로 받든 존재 엔키가 신이 아닌 에녹,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의 후손, 가인의 자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이면서 창세기 4장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선포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창세기 3장을 지나 에덴 밖에서의 역사를 시작하는 인간에게 변함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에녹의 아들 이라트에 관한 제안이다. 창세기 4장 18절 첫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에녹에게 이라트가 태어나니..." 가인의 아들이 에녹(=엔키)이며 에녹의 아들은 이라트인데, 이 이라트(Irad)이 바로 에리두(Eridu)의 히브리어식 표기라는 제안이

이 되는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굳이 한 예를 더 들자면 단지파가 정착한 성을 단이라 부른 사건이다(삿 18:29).

이 두 제안을 다 수용한다면 "에녹에게 이라트가 태어났다"는 말씀은 인류 역사 최초의 도시가 엔키를 구심점으로 에리두에 세워졌다는 메소포타미아의 전승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그 성을 가인이 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wayyēda qayin 'et-'ištō wattahar wattēled 'et-hānōk wayhī bōne 'ir.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는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성을 쌓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 이름 에녹으로 불렀더라."

문법상 성을 쌓은 것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려지지 않는다. 가인일 수도 있고 에녹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 성은 가인의 성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후손

이 이를 누렸다. 비록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았겠으나(창4:12) 그 후손들에게는 정착하여 농경체제를 구축하고 살 기회를 막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한다고 볼 여지를 주는 대목이다. 에녹과 그 후손 이라트의 성. 그 에리두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어진 것이다.

발굴자들은 에리두의 첫 축성 시기를 주전 5300년경으로 보고 있다(제18주거층). 그리고 창세기와 메소포타미아 전승은 둘 다 이 시기가 대홍수 이전 시기가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연대기를 설정해 나가는데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황상 충분한 발굴과 자료조사가 이뤄지기에 너무 많은 장애가 있는 시기였지만 충분히 관찰할 기회가 주어진다 아마도 다음 내용을 반영하는 흔적들이 지층을

따라 무수히 발견될 발굴지가 아니었을까 상상해본다:

"에녹이 이라트를 낳고 이라트는 므후아엘을 낳고 므후아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벡을 낳았더라 라벡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족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벡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벡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칠 배일 진대 라벡을 위하여는 별이 칠 배일 진대 하리라" (창 4:16-24).

spark4@gordonconwell.edu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사람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단어들이 연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이 일상에 활발하게 적용되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로봇기자, 로봇핀드 매니저처럼 더 많은 산업현장에 인공지능, 로봇이 도입되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벌써부터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위협해왔습니다. 아마존의 유통혁신은 '계산원, 포장 직원, 상품인열 직원, 물류센터 직원' 등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실제로 물류센터 직원을 잇달아 해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직원 2명만 남기고 600명을 해고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기존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에서 오는 사회문제와 피로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기계(로봇)를 능가할 수 없어 한계와 좌절감을 느끼며 인간소외현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큼니다. '인간 복제', '킬러로봇' 같은 기술이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하는 문제도 끊임없이 거론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요?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미래역량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간 세계의 주류를 이룬 교육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제하고, 학습에서 비롯되는 인지능력만을 중요시했습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는 진화론적 개념을 중종고대학에서 철저히 무장시켜 세련된 인지능력으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 강조해 왔지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우리 자녀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를 'SQ'(spiritual quotient) 시대라고 단언합니다. 바로 PQ(신체지수), IQ(지능지수), SQ(감성지수)보다 상위지능인 영성지능이 우리의 실존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성지능은 갈등과 위기를 뛰어넘어 의미와 가치를 찾는 성공지수이자, 혼란의 시대를 살아내는 탁월한 능력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가장 좋은 생각, 감정,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성품'의 시대입니다.

좋은 성품은 AI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AI가 복제할 수 없는 창의성으로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 비롯된 '자존감'과 창조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창의성이야말로 미래에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벧후1:4 말씀).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초고속의 혼란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를 붙드는 힘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SQ, 영성지능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좋은 성품으로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미래를 위한 교육의 전략으로 '좋은나무성품학교' 프로그램을 12가지 주제성품으로 가르치고 연습하도록 합니다. 미래사회는 영성 있는 좋은 성품의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품 좋은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세미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02: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일 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 2부 예배: 오후 08:45 주일 3부 예배: 오후 08:45 금요일 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후 09:0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사벽별장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00 수요일 찬양: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7: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일 찬양: 오후 8:30 새벽 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 1부 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구역모임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창립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 찬양: 오후 8:30			
베이스айд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강단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 오전 5:45 전인생특별사례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9:15 주일학교: 오후 1:50 창립년예배: 오후 3:4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진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20		어린이개혁교회 담임목사: 유송혜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 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장부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밴쿠버빌리델리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일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일 찬양 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포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하와이 한인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입구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 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 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연신학교 교수 2. 임하수원 신학교 교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3:00 주일 3부 예배: 오후 5:00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구차한 핑계, 생명의 핑계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치처럼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한다면 우크라이나

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라는 구차한 핑계를 대며 약소국을 침략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때 어떤 핑계를 대다. 핑계는 어디서 왔을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궁하자,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변명하였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핑계하였다. 타락 후에 사람의 혈관과 근육에는 핑계의 DNA가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의 후손답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또는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끝없이 핑계한다.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온갖 핑계를 댈다. 자신의 팔자가 원래부터 좋지 않아서, 관상이 좋지 않아서, 손금이 원래 그래서, 심지어는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면서 무덤을 옮기기도 한다.

핑계의 심리학은 무엇일까? 사람은 자신이 한 일 또는 할 일을 정당화 하고 싶어서 핑계를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핑계를 만든다. 사람은 삶이 버

겨울 때 그 탓을 타인이나 다른 것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릴 때, 그 짐은 훨씬 가벼워진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다른 것에게 전가한다. 그런 후에 자기 자신은 그 핑계의 무덤 뒤에서 편하게 숨어 지낸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말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어떤 이유를 댈다. 바울은 "...때문에", "...말미암아", "...인하여" 라는 표현을 무수히 사용하였다. 이 말들은 변명이나 책임전가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바울의 표현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핑계의 의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사도 바울은 이 핑계를 오히려 역발상으로 사용한다.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복과 합을 얻었고(롬3:24),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고(롬5:1),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고(롬5:21,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엡1:5),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고(롬5:17),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얻는다(엡1:7)고 말씀한다.

바울이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며 웃을 수 있다.

"만 가지 이유"(10,000 reasons) 라는 찬양이 있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만 가지 이유가 생긴다. 하지만 또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만 가지의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 낸다.

우리는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 혼자 힘으로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성도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 도살당하는 양 같은 처지에 놓인다 할 때라도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롬8:35-39).

매일의 삶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선하고 아름다운 핑계, 이 생명을 살리는 이유를 성관화 하여서 어려움을 넘겨서 이겨내자. "예수님 때문에..." dik0184@yahoo.com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세요!

(1면에서 계속)

김정환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갑자기 일어난 전쟁으로 강도당한 이웃과 같이 매일 비참한 현실 가운데 고통 받고 있다"며 "미주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모금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선교사는 이어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를 위해 지원하는 선교사는 모두 검증된 선교사로, 모두 우크라이나 현지와 국경에서 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다"며 "지원금은 투명성을 가지고 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역에 사용되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은 목사는 "여러 단계들이 세상 어려움에 있을 때 힘을 합쳐 따뜻한 사랑을 보낸 기억이 있다.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소식 접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랑을 전달했다"며 "OC교회와 선미미스트리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 사랑을 전했다"며 "심심일반으로 정성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목사(OC목사회 총무)는 "미국 뉴스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자들을 영웅이라 하지 않고 선한사마리아인이라 하는걸 보게 된다"며 "우리가 선한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 미니스트리는 1차(4월 30

일 마감)와 2차(5월 31일 마감) 모금을 통해 20만 달러를 4명의 선교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선 미니스트리는 더 나아가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비롯해 미주 전 지역의 한인교계와도 연계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후원금을 보내길 원하는 남가주를 비롯한 미주 지역 교회와 기관 단체는 SON Ministries (Pay to order) 주소 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김정환 선교사 (714-350-6957)나 심상은 목사 (714-722-4805)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뉴욕교회 후원모금운동

뉴욕교회는 3월 1일부터 3일간 열린 기도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종식을 위해 기도했으며,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위한 후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또 뉴저지 교회와 목사회는 연합으로 3월 11일 저녁 우크라이나 전쟁종식을 위한 특별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뉴욕교회(회장 김희복 목사)은 우크라이나 선교사 최하영·김순희 부부, 김명원·박선애 부부, 권영봉·김정신 부부 등은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최현·최안나 선교사 부부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최하영·김순희 선교사 부부는 뉴욕에서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와 총무 임

영근 목사와 만남을 가졌다. 뉴욕교회는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이 다시 귀환할 때 후원금을 전달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난민들에게 복음과 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위로하며 용기와 비전을 불어 넣어주는 일에 뉴욕교회가 동참하고자 한다"며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후원금은 교회으로 모아진 성금은 모두 선교사들에게 전달된다. 수표는 CKC 앞으로 쓰고 우편주소는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718)279-5838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뉴욕교회는 우크라이나 권영봉과 김정신 선교사 부부가 보내온 "긴급 기도제목"이라는 선교편지도 소개했다. 선교편지는 예상 못한 참혹한 전쟁으로 인한 패닉과 고통의 상황을 전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승패는 주님이 결정하신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뉴저지교계 연합기도회

뉴저지교회(회장 고한승 목사)와 뉴저지목사회(회장 윤명호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특별 연합기도회가 3월 11일 저녁 8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열렸다.

연합기도회는 박지우 목사의 찬양과 고한승 목사 인도로 기도 윤명호 목사, 성경봉독 오범준 목사, 설교 신태훈 선교사

(GUM선교회 사무총장), 헌금기도 김동권 목사, 통성기도 송호민 목사, 백형두 목사 외 1인, 축도 양춘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통성기도 제목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150만 난민들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크리스천과 선교사들을 위해.

이날 드려진 특별헌금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직접 전달한다.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우크라이나 교회 직접 후원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는 우크라이나 한인 선교사들과 연결해 후원하고 있다.

회장 신은철 목사와 부회장 한필상 목사, 김레너드 목사는 지난 3월 8일 뉴욕 안디옥침례교회(담임 한필상 목사)에서 모여 우크라이나 현지와 화상전화를 통해 현지상황을 전달받았다.

열방교회 담임 김레너드 목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으로 1995년 미국에 이민왔으며 우크라이나로 파송돼 1997년부터 4년간 선교사로 섬겼다. 이후 2000년부터 뉴욕 브루클린에서 구소련 여러 민족들이 모인 열방교회를 시작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지자 김레너드 목사는 그동안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우크라이나 교회들과 한인 선교사들을 돕고 있다.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에서도 김레너드 목사를 통해 현지 교회에 성금을 보냈다.



김레너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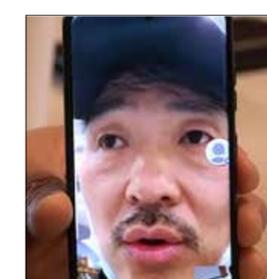
현재 지원하는 곳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쟁을 피해 피난민이 몰리는 서부에서 난민들을 돌보는 5개 교회다. Uhgorod 지역 교회(Vasil Fenchak 목사), Lviv 시 3개 교회(Andrey Sipko 목사, Pavlov Lozinskiy 목사, Yurii Romanyk 목사), Mykachevo시 교회(Shelko Yurii 목사) 등이다.

이날 화상 통화를 한 우크라이나교회 Pavlov Lozinskiy 목사는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현지 상황을 소개하고, 난민들을 위해 2개 쉼터를 오픈해 난민을 돌보고 있다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한편 김레너드 목사를 통해 한국인 및 한인 선교사들도 도울 수 있다.

한국에서 파송된 전만규 선교사 28년째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정부 요청에 따라 슬로바키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우며, 우크라이나 현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날 화상통화를 한 전만규 선교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슬로바키아나 폴란드로 넘어가지만 그 후 갈 곳을 몰라 우왕좌왕



황상통화하는 전만규 선교사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별히 난민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기도를 당부하고 난민들을 위해 매트리스, 에어매트, 침낭, 이불, 핫팩, 음식도 많이 필요하다고 후원을 부탁했다.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에는 한국인 선교사는 10가정 정도가 있었지만 전쟁 후에는 한국정부 명령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인근 국가에서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을 갖고 남침례교 파송을 받은 정광섭 선교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머물며 우즈고라드에서 난민 돕기 사역을 하고 있다.

김레너드 목사를 통해 현지 교회, 전만규 선교사, 정광섭 선교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 목사가 속한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에서는 김레너드 목사를 통해 1차로 2천 달러를 현지 교회로 보냈으며, 회원교회들의 성금이 모아지면 2차로 보낼 예정이다.

▲김레너드 목사 연락처: (917)817-2690, Kim_Leonid@hotmail.com (유원정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감사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중앙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인교회, 세계사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제1기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공부

라흥채 목사(뉴욕제자들교회)가 강의하는 제1기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공부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7주간에 걸쳐 오후반(매주 화요일 오후 2-6시), 저녁반(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시)으로 주 2회에 걸쳐 열린다. 장소는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익 목사), 선착순 각 30명.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교재비는 30달러(교재&USB, 간식비 포함).

▲문의: (917)968-1024, 588-2934

“미움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퀸즈YWCA와 뉴욕교협 청소년센터(AYC) 주관으로 아시아 중증범죄방지를 위한 “미움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3월 한 달간 진행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과 함께 아시아계 대상 중증범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청소년들의 안전과 응급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증범죄 인식, 예방 교육과 대응법, 대처요령 교육을 한다.

▲문의: (718)279-1313 AYC, (718)353-4553 YWCA

유스대상 아시아인 혐오범죄 크라이모 오픈 포럼

퀸즈 남부 북부 경찰청이 주최하는 유스대상 아시아인 혐오범죄 크라이모 오픈 포럼이 3월 24일(목)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681-5426, (646)373-0393

“스트레스 & 감정관리” 워크숍

패밀리터치(원정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건강한 나 만들기’를 위한 “스트레스 & 감정관리” 워크숍이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미동부시간), 4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미동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등록비는 할인가 100달러.

▲문의: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

제7차 개신교수도원 사모수련회

제7차 개신교수도원(원장 김에스터 목사) 사모수련회가 5월 1일(주일) 오후 6시, 5월 3일(화) 오후 12시 중화상으로 열린다. 강사는 이상병 박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Santa Fe Springs, California) 총장 겸 신약학 교수)로 “위드코로나 시대와 바울의 신학과 영성” 주제로 등록비는 30달러(장학금 신청은 김에스터 목사에게)

▲문의 및 등록: 노선경 사모(isunkyoung@gmail.com) 이상화 사모(551)265-1187

노회장-신철웅 목사(뉴욕동), 이원호 목사(가든)

KAPC 뉴욕일원 노회들 정기노회, 새임원 선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노회들이 정기노회를 가진 가운데 지난 8일 뉴욕서노회(본지 1865호 10면 참조)와 뉴욕동노회, 가든노회가 제 90회 정기노회를 열었다. 뉴욕노회와 뉴욕남노회는 15일에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뉴욕동노회

뉴욕동노회(노회장 이규섭 목사) 90회 정기노회는 8일 오전 10시 뉴저지복된교회(담임 신철웅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이규섭 목사가 설교했으며, 부노회장 신철웅 목사가 기도, 이길호 신철웅 목사가 기도, 이길호 목사가 축도, 문덕연 목사가 광고를 했다.

이날 공천을 통해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신철웅 목사 △부노회장 문덕연 목사 △서기 차석희 목사 △부서기 문신언 목사 △회록서기 이문범 목사 △부회록서기 이우주 목사 △회계 황석천 장로 △부회계 한재덕 장로.

회무를 통해 △뉴욕성실장로교회 이길호 목사의 시무 사면 및 원로목사 추대 연기와 차석희 목사 위임목사 청빙 연기 청원 △뉴욕침사자교회(문신언 목사) 김진형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 청원 등을 처리했다.

뉴욕성실장로교회는 성전 이전 마무리 및 차석희 목사의 개인 사정으로 담임목사 이취임 일정을 연기했다.

뉴욕동노회 회원은 담임목사 15명, 부목사 5명, 전도목사 15명, 은퇴목사 1명, 무임목사 7명, 선교사 14명, 장로총대 1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든노회

가든노회 정기노회는 8일 오전 11시15분 뉴저지성도교회(담임 허상희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조성훈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식 목사, 성경봉독 김기환 목사, 설교 이원호 목사, 성찬예식집례 허상희 목사, 축도 김재호 목사, 광고 이준성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다시 노회장이 된 이원호 목사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본문으로 “우리 노회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이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공천을 통해 선임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이원호 목사 △부노회장 허상희 목사 △서기 이준성 목사 △부서기 김지희 목사 △회록서기 김기환 목사 △부회록서기 염현일 목사 △회계 박정은 목사 △부회계 허철회 장로.

이날 회무를 통해 △박해장 목사의 노회탈퇴 △박형기 목사의 노회탈퇴 △뉴저지기쁨의교회 교회명칭 변경 및 담임목사 청빙 △김재호 목사 아시아노회로 이명정원 등을 허락했다.

한편 5월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6회 정기총회가 시카고에서 열린다.

(정리: 유원정 기자)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가든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PCA 뉴욕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노회장-이상호 목사(뉴욕), 이상훈 목사(동북)

KPCA 뉴욕일원 노회 정기노회, 새임원 선출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와 동북노회 정기노회가 3월 14일 각각 열렸다. 뉴욕노회 제 66회 정기노회는 저녁 7시부터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에서 시작돼 15일까지 진행됐다. 동북노회 제 38회 정기노회는 오후 5시 중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열렸다.

뉴욕노회

1부 예배와 2부 회무로 진행된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이상호 목사(월명동 장로교회) △부노회장 김일국 목사(뉴욕한성교회), 김기준 장로(뉴욕방주교회) △서기 박맹준 목사(뉴욕신일교회) △부서기 김원진 목사(예수반석교회) △회록서기 조유환 목사(뉴저지 선한말씀교회) △부회록서기 조경윤 목사(서남시찰) △회계 김용호 장로(뉴욕예일장로교회), 김한두 장로(넘치는교회).

1부 예배는 부노회장 이상호 목사 인도로 기도 김근태 장로, 설교 노회장 주영광 목사, 성찬 집례 최호섭 목사, 축도 신상필 목사, 광고 김일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주영광 목사(넘치는교회 담임)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21:10-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침사기에 달리기 5일전 예루살렘에 가신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며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 성전은 번제와 희생 제사(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또한 기도하는 집”이라며 본문과 이사야 7장, 솔로몬 성전 낙성식 등의 성경말씀을 통해 ‘기도’를 강조하고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대선, 지역 교회, 총회 등 산재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회무처리를 통해서 △뉴욕 예일장로교회 유영근 전도사 목사인수 △주님의빛교회 김윤권 목사 노회가입 및 교회 노회가입 △뉴욕영락교회 이금순 전도사 목사고시 청원 등을 통과시켰다.

또 △뉴욕한인연합교회 장로 3인 선출 청원은 2인으로 △남치교회 김성수 전도사 목사인수 청원은 불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은혜로교회 장로 3인 증선 청원은 2인으로 수정해 통과됐다.

회무처리를 통해 △은혜교회 장로 4인 증선 △어스틴제일교회 장로 2인 고시 △은혜교회 유현주 전도사 목사고시 추천 △김세권 목사 회원 가입 청원 등을 처리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참종은교회 신상필 목사(69세)가 청원한 △목사 시무연령 70세 제한 규정 삭제와 △노회규칙으로 교회 통폐합 규제지원 청원은 대외로 보내기로 결의했다.

감사 이경세 목사는 회계 감사보고를 통해 회계정리가 잘되었음을 보고했다. 회계 김기준 장로는 회계보고를 통해 지난해 수입 70,512불, 지출 61,493불을 보고했다.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은 보고를 통해 신학사 7명, 교역학석사 16명, 신학석사 2명, 청강 5명이라고 학생 등록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신학생 학보를 위해 예일교회에 신설한 뉴욕캠퍼스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9명이 수업중이라고 소개했다.

동북노회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이상훈 목사, 기도 정연오 장로, 설교 유용진 목사(전 노회장), 축도 이수영 목사(전 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노회장 박용진 목사의 2년 임기를 마치고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이상훈 목사(은혜교회) △부노회장 백성철 목사(아비장교회), 정연오 장로(목양교회) △서기 허신국 목사(목양교회) △부서기 최성훈 목사(한길교회) △회록서기 권석 목사(보스톤새해교회) △부회록서기 정선희 목사(뉴욕밀알장애인선교회).

임원회의의 보고를 통해 나성영 락교회의 교단탈퇴에 따른 총회 수송방안 설명을 들었으며, 필라노회로 이명환 안전수 목사가 가입했음을 통보받았다. 또 중단 중이었던 노회 웹사이트를 새로 제작하기로 했다.

회무처리를 통해 △은혜교회 장로 4인 증선 △어스틴제일교회 장로 2인 고시 △은혜교회 유현주 전도사 목사고시 추천 △김세권 목사 회원 가입 청원 등을 처리했다.

(유원정 기자)



21희망재단 초청 원로목사/사모 위로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1희망재단 초청 원로목사/사모 위로모임

뉴욕한인원로목사회, 21희망재단에 후원금 전달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회장 김종원 부정령)는 지난 3월 8일 베이사이드 삼원각 식당에서 21희망재단 초청 “원로목사, 사모위로모임”을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예배는 이병홍 목사 인도로 이종성 목사의 기도, 김명옥 목사(뉴욕목사회장)의 “참 신앙인”(요 1:47)이란 제목의 설교, 김원기 목사의 봉헌기도, 변종덕 이사장(21희망재단)의 위로

의 말씀, 김종원 사관의 감사 인사, 이병홍 목사의 광고에 이어 김용길 신부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정익수 목사의 식사 감사기도 후 오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몇 회원들이 모은 21희망재단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순서도 있었다.

(기사제공: 뉴욕한인원로목사회)

뉴욕센트럴교회, 선교사의집에 1만불 전달

뉴욕센트럴교회, 선교사의집에 1만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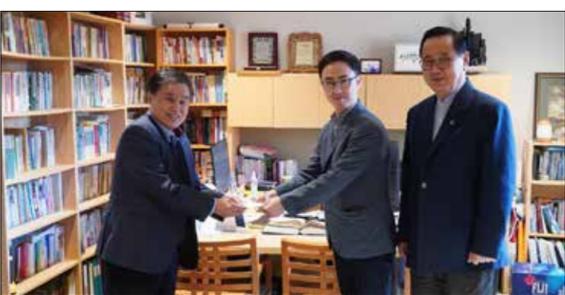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3월 10일 오후, 교회를 방문한 뉴욕선교사의집 대표 최문섭 장로에게 후원금 1만 불을 전달했다.

2007년부터 뉴욕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의 보급자리였던 뉴욕선교사의집은 장소 사용이 만료되어 지난해 12월 5일부터 사역을 임시 중단한 상태다.

김재열 목사는 뉴욕선교사의집 사역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비를 건너 뛴 적이 없다. 1년에 교회에 선교사 43분이 오실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냥 보내드린 적이 없다. 그것이 생활과 목회에서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확신이 든다”라며 많은 교회들의 뉴욕선교사의집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뉴욕선교사의집 대표 최문섭 장로는 현재 모금과 동시에 뉴욕선교사의집 공간으로 사용할 주택 및 교회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근황을 알렸다. 건물 구입을 위해 현재 55여만 불이 모아진 상태다.

(기사제공: 뉴욕선교사의집)



왼쪽부터 뉴욕선교사의집 대표 최문섭 장로, 뉴욕센트럴교회 조영찬 부목사, 김재열 담임목사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연례기도회 대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 되도록 기도하자”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연례기도회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연례기도회가 3월 12일 오전 8시 “공의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뉴욕그레이트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대면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뉴욕지회장 손성대 장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온 국민이 뜻을 합해 남북통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 없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기도회는 부회장 김태수 목사 사회로 개회선언 황정영 부회장, 대표기도 강주호 목사(뉴욕신광교회), 성경봉독 정 훈 간사, 특별찬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단장 김동권 목사, 지휘 김중윤 목사), 말씀 양민석 목사, 인사말씀 손성대 장로, 특별기도 인도 장철우 목사, 특별찬양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전병삼 장로,지휘 이다니엘 장로), 격려사 이병관 장로(한국회장) 장석진 목사(뉴욕지회 고문)(영상), 축사 고한승 목사(뉴저지교협회장) 찰스윤 뉴욕한인회장(영상) 그레이스맹 하원의원,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원로)(영상), 광고 장세환 사무총장, 축도 김중연 목사(고문)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목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행13:20-2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현재 진행중이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된 다윗왕의 리더십을 소개했다.

양 목사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삶의 기준점이었고 주변에 멘토 사무엘이 있었다”며 “지도자 주변에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나라가 사람에게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나라는 하나님에 주권에 의해 움직여 간다”며 “우리가 기도하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이어진 특별기도는 △한미국가 지도자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김희복 뉴욕교협 회장 △차세대 부흥을 위하여, Joseph Pang 목사 △한인사회와 교계의 화해 일치를 위하여, 황규복 장로(뉴욕장로연합회장)가 각 제목으로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다시 복음 앞에 서다!”

OC전도협 주최, 평신도 신앙향상을 위한 말씀집회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집사) 주최 ‘평신도 신앙향상을 위한 말씀집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다(롬1:16-17)’라는 주제로 3월 13일 오후 6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 주최 ‘평신도 신앙향상을 위한 말씀집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윤우경 본회 이사장 사회와 윤강혁 부회장 찬양인도로 열린 이날 집회는 심상은 목사(갈보리산교회, OC교회회장)가 환영 및 기도했으며 김생수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가 성경봉독, LA목사중창단(지휘 서문옥 목사)이 특별 찬양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조정민 목사는 “기독교가 공인된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이 자행

됐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교회가 줄어드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 질문하며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생명의 피로 씻어 주신 하나님,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성령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믿음이 있

다면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조 목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을 저주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가 됐다”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한다. 부흥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며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기도해야 한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를 떠난 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조정민 목사가 △평신도 재현신 △한국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복음의 국가가 되도록 등의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집회는 조정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걷힌 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KWMF LA Summit Conference 2022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표회장 강형민 선교사)는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KWMF LA Summit Conference 2022를 오는 4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숙식 제공)이며 등록은 온라인(www.easyregi.net/kwmfsummit-LA2022)으로 하면 된다.

▲문의: dkanghm@gmail.com 강형민 선교사

제3기 은혜 융접학교 개강

융접기술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제 3기 무료 융접학교가 오는 4월 개강한다. 은혜봉사센터(Grace Community Service 센터장 윤만 장로)가 올해로 3회째 마련하는 이 프로그램은 실기 위주의 10주 집중교육을 통해 융접 기능공을 배출하는 직업교육이며, 프로그램 이수자는 미전역에서 자격이 인정되는 미 융접협회(AWS) 라이선스를 취득해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된다. 교육은 오는 4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 2개 반으로 나뉘어 오전 9시-오후 3시에 실시되며, 융접부스가 설치된 이동식 교육센터인 대형 트레일러가 풀러튼 은혜한인교회 주차장으로 옮겨와 교육을 진행한다. 미 비영리기관(Reignite Hope)과 연계해 실시하는 이 직업교육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료와 교재비가 없고, 방호복, 글로브 등 교육용품도 모두 무상 지원되며 융접기술을 통해 안정된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등록인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등록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융접학교 지원은 이름, 전화번호, 지원 동기 등을 적어 GCS로 이메일하면 된다.

▲문의: gcs welder@gmail.com 케이 리 전도사

OC목사회 3월 월례회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3월 월례회가 3월 28일(월) 오후 5시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7342 Orangethorpe Ave, #112, Buena Park)에서 열린다. 이날 말씀은 손태정 목사(OC목사회 증경회장)가 전한다.

▲문의: (714)313-5535

제1회 산타페 상담소 독서치유 모임

지난 1월 21일 정식으로 재 오픈한 산타페상담소에서 제1회 독서치유 모임을 개최한다. 첫 모임은 3월 31일(목)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이며 5월 19일까지 8주간에 걸쳐 매주 목요일 줌으로 진행된다. 모임 인도는 소장인 김경준 교수(미주장신대, 임상심리학 박사)가 맡게 되며 참가비는 100불이다. 이번 제1회 모임 선정도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저자 라이프펠로우 심교회 피터 스카지코 목사)이며 기독교서점 또는 아마존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santafecounseling21@gmail.com으로 하며 참가비는 전액 산타페상담소 운영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562)912-3800

그레이스미션대 IT 토포방학 특별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Media Arts for Worship and Streaming Technology 특별공개 인턴십 강의를 3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풀러튼 본교에서 갖는다. 미디어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신학생, 사역자, 선교사, 평신도사역자를 초대한다. 강의는 제임스 구 교수가 맡는다.

▲문의: (714)525-0088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주최한 2022 밀알장학복지기금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총84명 장학생에 104,200달러 전달

남가주밀알선교단, 2022 밀알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는 2022 밀알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을 3월 12일 오후 4시 갈보리산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었다.

이종희 단장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밀알선교단이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해주신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장학금을 받은 밀알 가족들의 기도제목 나누며 함께 믿음 안에서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행사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장학금 전달할 수 있었다. 2021년 밀알의 밤을 통하여 조성된 수익금으로 올해 84명의 장학생들에게 104,2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희 목사 사회와 밀알 찬양팀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

는 양희원 박사가 기도했으며 심상은 목사(갈보리산교회)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사 43: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장학금수령식이 열렸으며 장학생 테니 데이빗정 형제가 특송을 불렀다. 이날 장학금은 장애인 장학생(14,400달러) 4명, 꿈나무 장학생(5,000달러) 5명, J&J 장학생(4,000달러) 2명, 제임스윌드와이드 장학생(1,000달러) 10명, 근로복지생(3,600달러) 3명, 문파운데이션 장학생(1,000달러) 1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1,000달러) 20명, 사역자육성장학금(1,000달러) 10명, 긴급지원대상 추가 기금(1,000달러) 20명이다.

이종희 목사가 밀알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으며 이은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KPCA 서노회 제98회 정기노회가 나성서남노회에서 열렸다

“나성영락교회 교단탈퇴 불법”

KPCA 서노회 제98회 정기노회, 총회재판국장 보고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이재광 목사) 서노회(노회장 지영환 목사) 제98회 노회가 3월 10일 오전 11시30분 나성서남교회(담임 최권능 목사)에서 열렸다.

지영환 노회장 사회로 열린 회의는 절차보고, 재판국 보고, 공전위원회 보고, 헌의위원회 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재판국 보고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한 나성영락교회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로 인해 발생한 총회재판결과 나성영락교회 공동의회 개최는 불법이며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한 박은성 담임목사와 13명의 당회원들에 대해 2021년 10월 20일부로 면직 및 출교조치가 됐다는 지난 2월21일 결정된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김영복 총회 재판국장

이 보고했다.

또한 이날 KPCA 제46회 총회소집에 대해 알렸다. 총회는 오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담임 박상근 목사)에서 열린다.

회의에 앞서 지영환 목사 인도로 열린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김재철 장로가 기도했으며 지영환 목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행1:6-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권능 목사가 성찬예식을 집례했고 김진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나성영락교회의 KPCA 교단 탈퇴 및 박은성 목사의 면직결정에 대해 나성영락교회 당회측의 반발에 대해 서노회 측은 사회재판으로 가게 될 것을 예상하며 이에 대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제5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 영혼의 귀중성’ 강조

제5회 머슴교회세미나, 송영선 목사 강의

제5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가 만나면사랑하는사람들(디렉터 김성모 목사) 주최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순전교회(담임 이진환 목사)에서 열렸다.

8일 오후에는 ‘한 영혼의 귀중성’에 대해 송영선 목사(빌립보교회 원로)가 강의했다.

송영선 목사는 “음부의 권세의 거짓말은 큰 것은 작은 것보다 가치 있으며 많은 것은 적은 것보다 가치 있다. 그리고 다수는 소수보다 가치 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목사는 “예수님의 가치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

트는 차이는 없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가진 자도 한 달란트 이상 남겼다. 주님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를 똑같이 칭찬하셨다”며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남겼다면 동일한 칭찬이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주수까지 할 생각은 하지 말라.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다. 주님께서 열매도 맛보게 해주신다. 하지만 열매에 목을 매면 욕심이 생긴다. 따라서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겼다. 그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을 때까지 300년 걸렸다. 즉 깨어서 준비하고 맡겨진 영혼들 때를 따라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성서장로교회 설립 53주년 기념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총일 담임목사 취임, 김병용 원로목사 추대

성서장로교회 설립53주년 기념 감사예배, 원로장로 추대 등

성서장로교회(담임 김병용 목사) 설립 5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3월 13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정총일 목사 취임, 김병용 목사 은퇴 및 원로추대, 윤갑식, 이왕열 장로 원로장로 추대식이 있었다.

김병용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전지승 목사가 기도했으며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나만주 목사가 ‘내 안에 거하라(요15: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병용 목사 인도로 시작된 제6대 정총일 담임목사 취임식은 취임목사 소개, 서약, 기도 및 공포, 취임패 증정으로 이어

졌다. 그리고 정총일 목사가 취임사를 했으며 김조나단 목사가 권면 및 축사, 이영현 권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어 윤갑식, 이왕열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총일 목사 인도로 시작된 김병용 목사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식은 윤갑식 장로가 원로 목사 소개 및 추대사, 서중운 목사 기도, 공포, 추대패 증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김병용 목사가 인사했으며 권오달 목사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장광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감사한인교회 부흥회에서 조정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본질로 돌아가다’ 주제

감사한인교회 설립39주년 기념부흥회, 강사 조정민 목사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설립39주년 기념 부흥회가 ‘본질로 돌아가다’라는 주제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정민 목사(배이직교회 담임)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3일 오전 11시30분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구봉주 목사 사회로 박리치 장로가 기도와 사랑사가 대 찬양이 있었다.

이날 조정민 목사는 ‘주 안에서 하나되다(요17:20-2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정민 목사는 “교회는 하나 공동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분이 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셨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가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전초기지야 같은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끌고 내려오시는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다. 이미 이곳에 임재해 있다. 하나님나라는 이 세상 온 우주를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며 죽음이후를 걱정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에게 주예수를 믿으면 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초대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을 정점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증인공동체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될 수 있고 교회가 이세상의 마지막 담이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한인교회가 팬데믹 지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구봉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윤석열 정부’ 기독교 주요 이슈 전망

기독교계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의 헌법소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계 최대 이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론수렴 등 국민적 합의 절차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제화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독교 관련 정책들은 어떻게 반영될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계가 제안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윤 당선인 측의 답변을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봤다. 앞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주요 기독교 관련 정책을 대선 후보 측에 제안했고, 당시 윤 후보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답변을 보내왔다.

차별금지법 처리 늦추고 사학법 헌법소원 속도 낸다 포괄적 차금법, “여론수렴 등 국민적 합의절차 필요” 국민의힘, “사학법, 교계의 헌법소원 지원할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헌재 국회에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은 법제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국민비전클럽 월례예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어떤 경우에도 종교와 신교의 자유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현재 20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별도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된 제정 목적이 동성애·성소수자 보호”라며 “이를 반대하는 사 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일으킨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

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교계 행사에서도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를 차별 해선 안된다면서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에 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 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당장 법제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계와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 하고 국회 논의 과정도 거처 야 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교계는 지난 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미션스쿨(종교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미션 스쿨의 고유 특성을 존중해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게 해 달라며 법제개정을 요구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계는 ‘사학법 인 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를 조직 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 관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 단이 구성됐으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흘 만에 1만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학미 션은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이 없어지면 교육 선택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까지 상실 될 가능성이 크다”고 헌법소 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은 교계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편 이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 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 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 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 사다. 시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

표는 “(교계가 추진중인) 헌법 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이 담긴 소장이 지난 달 23일 헌재에 제출된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헌법 소원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 로 보인다.

◆유사종교 피해방지·구제 법=이단·사이비 종교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게 교계의 요 청이다. 윤 당선인 측은 재산 권 보호 차원에서 ‘기본적 동 의’ 입장을 견지했다. 윤 당선 인 측은 답변서에서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 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범법 행위”라며 “착취 된 재산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 다”고 밝혔다.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 을 내비쳤다. 기독교 근대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 로, 윤 당선인 측은 “현재 전통 사찰이나 향교 등은 문화재보 호법 및 전통사찰보존지원법, 향교재산법 등으로 재산들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 나 천주교, 원불교 등은 특별 한 입법이 없다”면서 “모든 종 교문화유산에 대한 지정·보호 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설명했다.

웨슬리안 6개 교단장 손잡았다

기감·기성·기하성·예성·나성·구세군... ‘웨슬리안교단장협의회’ 출범

웨슬리안 신앙을 추구하는 국내 6개 교단이 한데 뭉쳤다. 감리교 창시자이자 근대 복음 주의적 기독교 부흥을 이끈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신학을 연구하고 전하며, 함께 교회와 사회를 섬기자는 취지에서다.

이들 교단은 11일 서울 여의 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웨슬리 안 교단장협의회’ 출범 감사예 배를 드리고 본격 활동에 나섰 다. 참여 교단은 기독교대한감 리회(감독회장 이철 감독)와 기 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지형 은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 상문 목사), 나사렛성결교회(총 회장 신민규 목사), 구세군 대한 본영(사령관 장만희 사관) 등 6 개 교단이다.

이들 웨슬리안 교단은 한국 의 전체 교단 가운데 35%를 차지한다. 그동안 이들 교단간 목 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계와 연대는 있었지만, 교단장을 축 으로 한 큰 틀에서의 제도적 기 구는 없었다.

협의회는 “성경·전통·이성· 경험을 축으로 하는 웨슬리안 신학의 흐름과 인물, 역사적 사 건을 연구하고 적용해 나갈 것” 이라며 “생명을 살리고 존엄하 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 욱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 직은 순번제로 담당하기로 했고, 초대 회장은 이영훈 기하성 대 표총회장이 맡는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이날 창 립예배 설교에서 “개인 구원, 성 령 체험을 강조하는 운동이 성경 운동으로 성결교회를 탄생시킨 데 이어 오순절 운동을 통한 오 순절교회를 탄생시켰다면, 사회 적 약자를 돕는 사랑의 섬김은 구세군을 탄생시켰다”면서 “웨 슬리 성령 운동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6개 교단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 교협력체이자 사랑실천운동 공 동체로서 기쁨으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자”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이철 감독회장은 “웨슬리안 신앙의 큰 장점은 서 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섬김이다. 회원 교단들이 뿌리와 방향이 같은 형제의 마음과 목 소리로 서로 협력하자”고 힘주 어 말했다. 지형은 기성 총회장은 “웨슬리안 신앙은 성령의 거 주하는 역사로 개인과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라며 “교과를 초월한 영적 갱신 의 전통으로 이 세상에 삶의 방 향과 관점을 제시하자. 성령의 하나님되게 하심을 지켜나가자”고 격려했다.

“전쟁에 항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냐”

종교시민단체 ‘우크라이나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 발족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리본을 단 드미 트로 포도마렌코 주한 우크라 이나 대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고국의 상황을 전했다. “우크 라이나의 유치원 학교 병원 공 항 다리가 러시아 군대의 주요 타겟이 됐습니다. 200개가 넘는 학교와 1500여개의 집들이 파괴됐습니다. 전 세계가 보내 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러시아 의 방해로 폐허가 된 도시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도마렌코 대사는 14일 서 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 발족 기자회견에 감사 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 다. 구호연대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국민문화재단 남

북평화재단 한국정교회 한국 YMCA전국연맹 등 27개 종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구호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전쟁을 겪었고 지금 도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정전 상태의 분단국에서 사는 우리 는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전 쟁과 난민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고통받는 전쟁 난 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 이고 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우리는 즉각적인 종전과 철군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또 세 계와 지구촌 시민사회, 특히 한 국 정부와 러시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러시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 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종교시민단체 대표들도 우

크라이나를 위한 관심을 부탁 했다. 안재웅 구호연대 상임대 표(한국YMCA재단 이사장)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과 그 를 향한 세계 연대는 끝내 승 리할 것이다. 우리는 피란민들 이 고국에 돌아와 파괴된 건물 을 재건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

어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 고 밝혔다. 암브로시오스 상임 대표(한국정교회 대주교)도 “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는 것이고 이에 항의하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다”면서 구호연대에 동참을 요청했다.

2000여 신학자 우크라이나사태 성명

한국기독교교회회(회장 이성빈 장신대 교수)는 1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인륜적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즉 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회는 전국의 신 학대는 물론 서울여대 송실대 연세대 등 기독교 대학 소속 신학 교수들까지 2000여명의 학자 가 소속된 매머드 학회다. 한국 구약학회 한국신약학회 한국교 회사학회 한국조직신학회 등 14개 산하 학회를 두고 있으며,

이번 성명은 회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성명은 “평화의 궁극적인 원 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 아 화평케 하는 자(마5:9)와 평 화의 사역자(고후5:18)로 살아 가야 함을 믿는다”면서 “물 한 그릇, 떡 한 조각, 옷 한 벌이 필 요했던 작은 자들(마25:40)의 고통에 먼저 응답하신 예수 그 리스도의 사랑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실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루마니아교회도 국경 넘는 이들 돌본다

텐트세우고 음식나눠...한교봉 ‘현지교회·선교단체 협력’

루마니아 수체아바주 돌브러 넨니시 베델교회는 돌브러넨니 체육관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캠프를 마련했다.

루마니아 북동부 수체아바주 (州) 시레트 국경은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했다. 기온도 폭 떨어졌다. 국경을 넘는 우크 라이나 피란민들이 맞닥뜨린 건 추위보다 더 엄혹한 현실이 었다. 슬픔과 안도가 교차하는 그들에게 루마니아 교회 등 종 교단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었다. 루마니아에 실사단을 파 견한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 은 향후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현지 교회와 협력을 모색하기 로 했다.

한교봉 사무총장 천영철 목 사는 13일 “구호 물품을 보내 고 국경에서 봉사를 진행하면

서 현지 교회와 선교단체의 도 움이 컸다”면서 “예측 불가능 한 전쟁 상황에서 서로가 협력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현지 선교단체인 ‘다음세대 미션’(MGM)은 시레트 국경 앞 에 텐트를 세우고 추위에 떠는 피란민들에게 루마니아 전통음 식인 사르말레와 따뜻한 차, 간 식을 제공했다. MGM 소속 바 이 엘리사씨는 “피란민들이 국 경을 넘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 다 마음이 아프다”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하다”고 말했다.

시레트 인근 수체아바주 돌 브러넨니시에 있는 베델교회는 시와 함께 돌브러넨니체육관에 난민 캠프를 마련했다. 교회는 체육관 맞은편에 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_____	영 어: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323) 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mission 선교의 창 (18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사순절(四旬節)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탄다. 아침에 일어나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한 살 나이를 더 먹게 된다. 신앙생활이나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이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초점이 맞추어지는 절기이다. 사순절의 의미는 성도들이 고요한 묵상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피라미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 몸부림치는 투쟁이 수반되어야 한다.

1.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四旬節, Lent)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주일 전야(Easter Eve)까지이다. 1순은 10일이

시작되며 이 중에서 주일(6회)을 제외한다. 주일을 빼는 것은 이날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때는 또한 세례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

제와 회개로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썼다. 그들은 특별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삼가했으며 화려한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생활을 자제하였다. 대신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선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중세에는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이 회개의 상징으로 자루 옷을 입고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8세기 이후로 가면서 많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14세기에는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기도가 행해졌다.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관습이 되었고, 저녁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되었다.

3. 현대 교회의 실태

사순절에 대한 크리스천의

기쁨과 생각이 묻어나는가? 불행하게도 저들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보다 여러 가지 일로 가득 차 있다. 늘 사역 때문 부담을 안고 살며 영혼에 힘이 없다. 사명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TO BE가 TO DO보다 우선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실제 환경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일에 휩싸이곤 한다. 그러면 말씀이 심령에 뿌리내리기보다는 겉돌게 되고 예수의 생애와 관련된 절기인식도 희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이멘트적 행사에 열정을 쏟다보면 자아(自我, ego)를 잃고 휘청거리게 된다는 것이다.

4. 사순절에 해야 할 일

사순절기는 신앙의 성장과 영적 훈련을 위한 좋은 기간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활동을 절제하고 수도사들처럼 조용한 침묵의 정좌를

려놓을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준수가 아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사국이다. COVID19로 인하여 사망자만 6백만 명을 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20대 대선 결과로 인하여 민심이 갈라진 논바닥처럼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하나님께 탄원해야 할 기도제목이 어찌 한 둘이랴!

맺음 말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제자도를 훈련하는 기간이다.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성찰과 회복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의 향기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오랜 신앙경륜임에도 옛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성화는 한 순간에 되어질 수 없다. 산고의 고통 속에서 견고한 자아가 부서져야 한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우리는 고난을 면발치에서 보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그의 부활의 능력도 덧입을 수 있다.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향한 선지적, 제사장적 소임을 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마저 자기 안위만을 추구하며 세상을 등진다면 미래는 더욱 불행해질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 살름을 위한 대사들이다.

jrson007@hanmail.net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이다. 절기에 맞추어 주님과 연합된 인생살이는 영적 부요함이 크다. 우리는 이때에 세속의 티를 털고 맑은 영혼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므로 4순은 40일이 된다. 사순절을 영어로 Lent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뜻한다. 사순절의 전통은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단 40시간에서 기인한다. 후에 이 40시간이 연장되어 6일이 되었고 6일은 다시 6주간으로 늘어났다. 사순절이 6주간으로 토의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였다. 이를 계산하면 6주×7일=6일은 36일이다. 36이란 숫자는 1년 365일의 1/10에 해당한다. 현대 36일이었던 것이 731년 샤를마뉴(Charlemagne)대제 시대 다시 4일을 더 첨가하여 40일이 되었다. 따라서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46일 전에

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사순절 기간 집중적인 학습과 신앙훈련, 기도와 금식 등을 하며 세례준비를 하였다.

2. 사순절에 대한 교회의 전통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재의 수요일 또는 성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부른다. 처음 사순절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사제들이 신자들의 이마 위에 재로 십자가를 그려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주었다. 재(ash)는 회개의 상징이다(렘6:26, 은3:6, 마11:21). 초대교회는 이 기간에 금식을 강조했으며 자기절

인식은 어떠한가? 초, 중세 교회처럼 욕망을 제어하며 신(神)께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세속문화에 몰려 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목적이 지향적이다.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심신은 지쳐만 간다. 성도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수많은 모임들에 참가하지만 심령에 참된 평화가 없다. 종교행위만 반복할 때가 많다. 그 증거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잠14:13).

사역자들은 어떠한가? 목회자나 선교사의 얼굴에 여유와

사모하는 것이다. 주님의 고난을 자기 것으로 체화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축축이 덧입을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꺾인다. 좀 더 천천히, 깊이 주님과 연합되기 위한 몸부림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금식과 절제훈련을 해보는 것도 유익하다. 인간에게서 욕망은 경건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의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물들이 되는 핸드폰, TV, 미디어, 취미생활 등을 내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24 에베소를 찾아서

고린도에서 18개월간 사역을 마친 바울은 귀환 여정에서 에베소를 찾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잠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2차 선교여행 초기에 아시아선교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는데 결국 2차 선교 마지막 여정이 아시아의 중심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3차 선교여행에 다시 찾아옵니다. 에베소는 성경에 16번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 집중했고, 놀라운 사역의 결실을 얻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선택했던 거점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역사는 BC 13-14 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에는 아마존부족들이 거주했고, 히타

에베소는 교통과 산맥과 강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인 이유로 다민족, 다문화 대항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일찍이 무역, 종교, 문화 등으로 유명한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로마시대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시대에는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데미 신전은 BC 6세기에 건축되었는데, 헬라 제국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세계의 7대 불가사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전은 규모와 정교함이 탁월한 걸작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

고 웅장한 신전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마술(Magic), 주문(Incantation), 그리고 축신(Exorcism)이 흥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떠돌이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 내다가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행19:13-16). 이 말씀이 에베소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에베소의 복음화는 이런 우상들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우상의 극복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행19:19-20). 에베소에 마술이나 주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예술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많은 예술가들의 고향으로 알려집니다. 플루타크(Plutarch)의 기록에 의하

(Gymnasium), 그리고 극장들(Theaters)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를 방문하면 대형극장의 유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피온산(Mount of Pion) 언덕에 세워진 극장은 2만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극장은 규모뿐만 아니라 정교함에 있어서도 탁월합니다. 소수의 성지 순례객들이 함장을 해도 공명을 통해 야외극장 전체에 청아한 소리가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의 위치, 에베소의 문화적 기반 그리고 혼잡한 종교적 상황은 바울에게는 매력적인 선교지였습니다. 게다가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거주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던 선교사 바울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를 살펴보니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자 애를 썼던 이유, 2차, 3차 선교여행에 연속 방문했던 이유, 그리고 가장 오래 사역했던 이유를 깨닫습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 바울은 에베소 복음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선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티네와 고린도를 통해 바울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에베소 사역에 임하게 합니다. 준비된 바울 사역에 은혜를 주셔서 에베소 사역에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동서양 문화 모두 품은 국제도시이며 종교 백화점 세계선교 꿈꾼 바울의 최적지, 사역에 집중 큰 결실

이트족들이 거주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카이스테르(Cayster)강과 에게(Aegean)해를 접한 항구도시요 터키 내륙과 고속도로가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연히 에베소는 번창하는 무역도시였습니다. 고대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는 에베소를 가리켜 '소아시아 최고의 상업도시(the greatest commercial center in Asia minor)'라고 했습니다.

로마제국 안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소아시아지역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제국뿐 아니라 동서양 문화를 모두 품은 국제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의 종교가 성행한 에베소는 종교 백화점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원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규모가 미식 축구장만 했다고 합니다. 이 아

데미를 모독했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행19:28-29).

또 에베소 시민들은 제우스와 헬라의 신들을 섬겼고, 로마 황제 숭배와 각 나라 무역상, 여행객 이민자들이 가져온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종교 백화점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건너온 이시스(Isis) 숭배와 세라피스(Sarapis)가 성행했는데 이런 신들을 숭배하기 위한 화려하

면 당시 예술가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손으로 직접 무엇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하루 시민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예술가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고, 예술가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예술은 에베소 건축술을 만나며 놀라운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예컨대 광장(Public Squares), 경기장(Stadium), 체육관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리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제단을 만들라(출27:1-8)찬265장

하나님께서 제단제작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죽임당한 짐승을 태우는 장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기구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구들은 순금으로 싸서 만들었는데 제단은 놋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놋이 금보다 불에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단에서 태워지는 희생제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

서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단은 십자가의 모형이며, 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은 '죄인인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죄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십자가(제단) 앞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생명을 누립니다.

화 제사장 위임식(출29:1-9)찬285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기위해 위임식을 거행합니다(출29:10-25). 속죄의 과정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벧전2:9a)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정결

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하며,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거룩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롬13:14).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벧전2:9b)해야 합니다. 오늘도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제사장들로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수 매일 드려야 할 번제(출29:38-46)찬309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집례로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힘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드려야 합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드리는 '삶의 예배(롬12:1)'를 힘을 다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배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단회적인 동물의 제사는 단번의 완전한 제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됐습니다. 힘을 다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목 브살렐과 오홀리암(출31:1-11)찬333장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암'을 지명하셔서 성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은 '주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일을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시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하기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경책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출32:1-6)찬546장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우상(금송아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산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시다. 성도 중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토 중보자가 됩시다(출32:7-20)찬364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백성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중보기도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보기

도는 '친밀함'과 '사랑'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이며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중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제사장'(벧전2:9)으로서 그 둘을 연결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큰 사랑 중의 하나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품고 기도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10)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아이작 왓츠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Isaac Watts and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페라프레이즈(Paraphrase)라는 음악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하는 선율이나 가사를 변형하여 새롭게 음악에 접목시키는 창작기법입니다. 이것은 14-16세기에 걸쳐 교회음악에서 단성 성가의 선율을 자유롭게 변형하던 기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는 죠스케데 프레(Josquin des Prez 1450-1495)로 그가 하나의 선율을 변형시켜 여러 성부에 대입시켜 음악을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 내용 속에서는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언어가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하며 문제점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편, 교회음악 찬송역사에 있어 가사의 페라프레이즈 기법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교회음악의 큰 변화를 주었던 두 인물을 꼽으라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그리고 아이작 왓츠(Isaac Watts 1674-1748)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하는 시편의 내용을 바꾸어 그 당시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찬송을 만들어 그것으로 종교개혁에, 그리고 영국 찬송가역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아이작 왓츠의 페라프레이즈 기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시편뿐 아니라 복음서, 서신서에 나오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들을 그 당시 언어로 페라프레이즈하여 가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구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명하여 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표현하게 하였습니다.

왓츠는 그의 생애 동안 750편의 복음찬송을 만들면서 영국찬송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으며 영국 교회예배에 새로운 찬송시대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의 찬송이 미국에서 1720-1890년 3차에 걸쳐 전개되었던 대각성 부흥운동(The Great Awakening Movements)의 시기에 전파되어 주된 찬송들로 불려지면서 미국의 복음찬송을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메시지를 당시 언어로 만든 페라프레이즈 기법 사용 750편 복음찬송 작사...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에 큰 영향

개해하고자 합니다.

아이작 왓츠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찬송작가로서 1674년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회교교회 장로인 그의 아버지는 국교인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 이유로 두 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런 신앙배경 속에서 자란 왓츠는 영국 스토크 뉴잉톤(Stoke Newington)에 있는 아카데미(당시 영국 국교인 성공회에 반대하는 하나의 독립교단, nonconformist academy at Stoke Newington)에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왓츠가 쓴 "주 달려 죽은 십자가(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는 그가 쓴 찬송 중 가장 훌륭한 찬송 중 하나로 널리 인정 받고 있습니다. 1707년 만든 이 작품은 'Crucifixion to the World by Christ of Christ'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를 중심으로 해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이 같은 해에 왓츠 최초의 영국찬송가 모음집인 "Hymns and Spiritual Songs"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이 1824년 미국 작곡가 로웰 메이슨(Lowell Mason, 1792-1872)에 의해 미국의 복음찬송으로 널리 알려지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의 나이 20세에 다시 사우샘프턴에 있는 부모 고향으로 돌아온 그가 어느 주일날 제네바 시편가를 부르는 당시 교회예배의 전통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논박하며 아버지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 교단을 제외한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칼빈의 운율 시편가인 제네바 시편가(Genevan Psalter)만이 예배에서 찬송으로 불려졌습시다.

이 찬송 안에 담겨진 중심 내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왓츠가 제시한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시편을 문자 그대로 찬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찬송가는 단순히 먼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생각과 감정을 바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편

지난 2003년에 뉴욕에 있는 교회 The Church of Holy Cross에 두 번이나 도둑에 털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금함이 털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상이 도둑맞았습니다. 120cm에 약 91kg 정도 무게의 큰 동상이었는데 그것을 훔쳐갔습시다.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워터가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IL: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키르기즈스탄

2022년도 3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키르기즈스탄 박 다니엘, 아이잔 선교사를 통해 주님이 행하셨던 선교 사역과 비전을 함께 나누며 키르기즈스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3월 선교편지를 보내드립니다.

1. 교회 사역

바실리가 행복교회 주일학교에 키르기즈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에 한 번 있는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매주 마다 출석도장을 받아야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일마다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에 예배하는 어린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교회 공간이 협소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과공부를 하고 모임의 장소가 없었습니다. 교회 내부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밖에 있던 허름한 창고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공사를 시작해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모임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뒤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터가 있습니다. 이 터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구(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를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3월 8일 여자의 날을 축제의 날입니다. 어린 여자 아이부터 모든 여성분들을 축하해주며 선물을 줍니다. 저희 행복교회도 여성도님들을 카페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닌스꼬이 행복교회는 두 번째 안경 사역을 하였습니다. 안경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안경 때문에 교회에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려인이나 러시아인에게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키르기즈인들에게는 교회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키르기즈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봉사활동을 통해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단기선교는 이런 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성경학교, 미용, 의료등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물질과 헌신이 소요되는 사역이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장기 사역자인 선교사에게는 단비와 같은 선교입니다.

단기선교를 오시는 모든 성도에게는 선교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고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땅을 다져주는 귀한 사역이기에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이 사역이 다시 시작되어 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를 오시는 모든 성도에게는 선교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고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땅을 다져주는 귀한 사역이기에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이 사역이 다시 시작되어 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 어학원 사역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어서 접촉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어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학교 내에 어학원을 설립하게 하셨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영어반은 선생님이 없는 관계로 잠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특히 영어 등 중요 과목 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중앙아시아 목회아카데미

키르기즈스탄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증인, 안식일교,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가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쁜소식선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 모임에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척과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하기에 중목아(중앙아시아 목회아카데미)를 시작하였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칼빈신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16면으로 계속)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장애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25)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려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주권의 전이를 해야 한다(개인구원), 이것은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이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 생명(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통치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려 함이다(사회구원). 그러므로 개인의 회심과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는 민중 신학, 해방신학 등등은 용어는 성경적 용어를 쓰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육신적 메시아사상이나 사이비 종교인 공산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사탄의 영향력은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반대로 개인의 회심과 믿음은 중요시하지만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문제를 무시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성령님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사탄의 권세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사탄의 권세가 사회, 정치, 문화를 억압하는 상황에서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되고 그 사회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 이것은 무신론적 공산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모슬렘권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어야 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성화의 도구라는 적극적인 면도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도와 통한다.

그러므로 물질적 번영을 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고난과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뉴저지밀알 설날 웃놀이

가난과 고난을 성화의 과정, 하나님 뜻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 ‘하나님은 사랑’ 이시기에 장애의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

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자연환경에까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복음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모두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전도를 통한 개인구원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법을 바꾸는 노력도 힘써야 한다.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다.

5. 장애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예수를 믿으면 부자로 살 수 있고 사회에서 출세하게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사회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가? 먼저 구원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임을 생각하자.

영생은(신적생명) 단순히 정신적인 것만을 풍요로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도 함께 포함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적이거나 현재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정신적인 풍요뿐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까지 누리는 것을 구원의 복으로

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탄은 여전히 작용한다. 불의한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가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장애인 되고 불행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가난과 고난이 꼭 하나님의 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이웃의 가난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수님이, 바울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난과 고난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승화시키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 김세윤은 이렇게 말한다.

“바울은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성화시키는 도구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고난은 사탄의 권세가 아직도 실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려야 하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

도 없다. 장애의 고난도 장애인 본인을 성화시키며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장애의 고난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증거 할 수 있다. 싸그만은 이렇게 말한다.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가장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확고히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나는 기형인 육체가 고통의 집이라고 할 만한 어떤 젊은 여자를 알았다. 그녀가 앓고 있을 때 한 젊은 인턴이 그녀의 침상 곁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나도 자주 불평을 하는데 당신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명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인턴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턴이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miju9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6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6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제46회 총준위는 총회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시카고 대면총회를 준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회원들을 위하여 “휴식과 회복”의 총회를 준비합니다.

1. 총회일시 주후 2022년 5월 10일(화) - 5월 13일(금) (3박4일)

*주제: “교회의 기초와 권세”

2. 총회장소 Hilton Hotel(847-480-7500) 2855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3. 등록비 총회 등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화/USD)

Table with 4 columns: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28), 2차(3/31), 3차(4/15). Rows include 2인1실(1인), 2인1실부부, 1인1실, 원로/경로목사, and 원로/경로목사(부부).

4. 유의 사항

- 등록마감일에 따른 등록비는 엄격히 지켜질 것입니다. 조속하고 원활한 총회준비를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반 자녀 3-18세 \$170, 18세 이상 \$305(2인1실)
-총회 결의에 따라 각 노회의 공로 및 원로목사님의 등록비는 50% 할인됩니다.
-총회 세계선교회에서 선교의 밤에 참석하신 분에 한하여 가점당 \$500을 지원합니다.
-총회 파송선교사는 선교보고와 기타 일정을 위해 2차 등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백신접종 증명서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는 분은 1인당 참가비 \$200(점심 저녁 포함)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총회에 일찍 오시거나 늦게 가시는 분 중에 호텔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남수의 비용은 협상된 비용(1인1실, 2인1실 부부, \$122)으로 가능합니다.
-46회 총회총보 홈페이지(www.kapcmw.org)를 통하여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차 등록 마감일인 4월15일 이후에는 호텔 숙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총회 불참 시에는 호텔과 계약상 등록비를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총회 당일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하며, 입실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저녁식사후 개회예배는 오후7시에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총무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동시통역 영어권 총대를 위하여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 등록안내

총회 등록비(Check 또는 Money order)와 신청서는 총준위 회계 임철성목사께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MWP
* 주소 : Hebron Presbyterian Church (Att: Rev. Chul S. Lim)
511 Schoenbeach Rd. Prospect Heights, IL 60070

주후 2022년 3월

총회장: 오세훈 목사
서기: 장성철 목사
준비위원장: 강인국 목사
서기: 서정호 목사
총무: 박신용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6회 총회 준비위원회

